

온라인서 백화점 정기세일

metro®
메트로 2015년 1월 15일 목요일 제3136호 www.metroseoul.co.kr



'국제시장' 드디어 1000만



최태원을 어찌할꼬?

우유부단 정치에 SK만 골병

"특혜도 안되지만 역차별도 안된다." 최태원 SK그룹회장 가석방 문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다. 칼같은 결단력이 트레이드마크인 박 대통령마저 이 건에 관한한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식 선문답이나 하고 있는 것이다. 실무부처인 법무부도 일부 언론에 보도된 '2월 가석방 대상 제외'에 대해 '근거없는 추측 기사'라는 입장만 밝힐 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우유부단한 정치력으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과 국민의 피로도만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최 회장은 14일 현재 수감 중인 기업인 중 가석방을 위한 법정 요건을 충족한 유일한 재벌 총수다.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12년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형기의 3분의 1을 넘어야 한다는 가석방 법적 요건은 이미 넘어섰고 역대 재벌 총수 가운데 최장기간 수감 중이다.

한국의 기업문화는 총수가 결정권을 쥐고 있다. '오너리스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대규모 투자의 가부를 결정해야 할 재벌 총수의 기나긴 부재는 SK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중대 문제일 수밖에 없다. 집권 3년차 경제살리기에 성과를 내야 하는 박근혜정부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현재 여론은 재벌 총수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이 결정적이었다. 청와대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2면에 계속>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미생' 한석율로 뜬 변요한 실제론 상남자 p/17



'이겨내자' 14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도구해수욕장에서 열린 '2015년 해병대 겨울캠프'에서 한 참가자가 훈련 중 힘든 표정을 짓고 있다. 해병대 1사단이 주관한 이번 캠프에서 전국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176명의 참가자는 5일간 공수기초훈련과 전투수영 등을 익힌다. /연합뉴스

코스닥발 'IT 낙수 효과'



기자 수첩
김 현 정
<경제부 기자>

연초 국내 증시는 그야말로 코스닥발 'IT 낙수효과'를 받으려고 아우성이다.

유가증권시장이 대외악재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사이,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의 합성어)와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IT기술을 발빠르게 접목한 코스닥 강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상승랠리를 잇고 있다.

코스피 기업들 중에서도 IT기술 친화적인 곳을 중심으로 코스닥에 몰린 투자자 러브콜이 일부 유입되는 양상을 보인다.

기존 낙수효과가 대기업 실적 호조에 크고 작은 계열사와 납품 업체들이 수혜를 받는 형태로 나타났다면 이제는 거꾸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기대감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최근 금융수장들이 잇따라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최근 차기 금융투자협회장에 출마한 한 후보는 시급한 해결 과제로 소액결제에 한정된 증권사 핀테크 규제를 꼽기도 했다.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IT기술 중심의 새 패러다임에 대해 높은 성벽을 쌓기보다 이를 수용하면서 침체된 시장 속에서 생존전략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어느 때보다도 운용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다.

역사적 전례로는 오늘날 영국의 한 프리미엄 리그 축구단 구단주로 잘 알려진 만수르 가문이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 강력한 왕조를 건립한 과정에서 배울 바가 있다.

8세기 초기 왕조의 만수르가 칼리프(왕)들은 가장 먼저 유클리드 등 그리스 고전을 대거 아랍어로 번역해 경쟁 문명의 지혜를 배우는 일부터 시작했다고 한다.

핀테크, 사물인터넷, 3D 프린터 등 생소한 IT기술이 일상에 바짝 다가올수록 코스닥발 낙수효과가 기대되는 까닭이다.

'경제론' '정서론' 갈등만 심화

여야정치권 중구난방… 청와대 결단이 유일한 해법

<1면에서 계속>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박 대통령은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은 안 되지만 역차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결론을 유보했지만 '원칙주의자'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역차별'이란 단어부터가 심상치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가석방이 가능한데도 여론 탓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인식이기 때문이다.

여론에 가장 민감한 곳이라면 여의도 정가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형기 80%를 못 채운 기업인 가석방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제 형기의 50%를 채우게 된다. 80%라고 알려진 관행적 요건에는 못 미친다. 김 대표는 최근 기업인의 가석방을 찬성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날 김 대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방법론적으로 이야기했지만 현재로선 어려운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친박(친박근혜)계 정치인이라면 다를까. 이날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가석방은 법률상 형기 3분의 1을 지나면 가능하지만 법무부는 80%가 경과해야 심사에 올리고 있다"며 "그 기준에 맞추어 하면 된다"고 김 대표와 의견을 같이 했다. 김 원내수석도 기업인 가석방 찬성론을 편 바 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 기업인 가석방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았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화통화에서 "당론이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수감 중에 모범수로 행동을 보였다면 모를까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가석방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가석방의 경제적 효과 자체에 대해서도 "석방이 된다고 해서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보장도 없지 않느냐"고 했다.

기업인 가석방에 호의적이던 정치권도 한 발 물러선 지금 최 회장의 앞날은 오직 청와대의 결단에 달린 셈이다.

한편 최 회장이 이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법무부는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송병형기자



'축산도시' 안성 "소·돼지 구제역에 AI까지" 14일 오후 소와 돼지 구제역에 이어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까지 접수된 경기도 안성시의 한 오리농장 앞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소독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北 "올해 한반도서 많은 일 가능"

주유엔 북한 대표부의 안명훈 차석대사는 13일(현지 시간) "우리의 제안이 실행된다면 올해 한반도에서 많은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차석대사는 이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올해 1년간 임시로 중단하면 핵실험을 임시로 중단할 수 있다'고 지난 9일 미국 정부에 전달한 메시지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진정한 대화와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그러나 '서로 연계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는 말로 우리의 제안을 거부했다"며 "이는 미국이 북한에 취해온 적대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안 차석대사는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최근 몇 년간 규모와 범위가 계속 증가했다"며 "미국이 이런 종류의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제안을 수용할 때의 후속 조치나 '올해 한반도에서 가능한 일'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소니 해킹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말도 안 된다(out of sense)"고 미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윤아기자

北 제안에… 美 "모든 수단 동원해 북한 제재"

미국 정부가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에 따른 후속대응으로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13687호)을 발동한 데 이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제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는 13일(현지 시간) 하원 외교위원회(위원장 에드 로이스)가 주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불법행위를 하는 데 따른 비용을 높이고 국제적 의무와 규범을 준수하도록 가용한 수단을 전면적으로 동원해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우리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으며 북한이 불법무기와 도발, 인권탄압 행위를 스스로 포기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며 "양자와 다자를 아우르는 제재 확대를 통해 북한이 파괴적 정책 결정을 하는 데 따른 비용을 높이고 핵과 탄도미사일에 쓰이는 재원을 줄이며 궁극으로 북한의 선택지를 좁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과 관련해 "북한 정부와 당을 직접 제재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소니 해킹사건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앞으로 북한의 불법행위를 전면적으로 다뤄나가는 기본 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앞으로 기존 제재대상들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북한 정부와 당 소속 개인과 단체들을 제재해나갈 것이라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또 국토안보부는 별도로 공공 분야와 민간 영역의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는 대응조치를 마련 중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임시 중단하면 핵실험을 임시로 중단할 수 있다'고 북한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은 어떠한 핵 활동을 해서도 안 된다"며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할 사안을 일상적인 한미방위훈련과 연계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북한 테러지정국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인의견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정윤아기자 yoona1@

김무성 "경제 살리기에 당력 집중"

신년 기자회견서 혁신·계파 갈등 해소 다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4일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인 올해 경제 살리기에 모든 당력을 쏟고 구조 개혁과 혁신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야당과 적극 소통하고 국민 속으로 찾아가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김 대표는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 "올해가 '경제 살리기의 골든타임'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면 앞으로 우리에게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현 국면은 사회 각 분야에서 20여년 전 일본과 매우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한다"며 "사회 전반적인 개혁을 늦추게 된다면 나라와 국민은 일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2015년 한 해 동안 모든 당력을 경제 살리기에 쏟겠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당장 인기는 없지만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한다면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그 짐을 지겠다"고도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올 상반기에 꼭 해야 할 공무원연금 개혁의 경우 나라 재정을 생각해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며 "위기가 오고 있을 때 한발씩 양보하는 자세, 그게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 국민을 살릴 수 있다"고 했다.

정치 혁신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마음에 들 때까지 중단없이 혁신 작업에 매진하겠다"며 "당내 다양한 목소리는 장려하되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불협화음은 최소화하도록 제가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계파 갈등 해소를 다짐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어린이집 문 앞에 붙은 사과문 보육교사가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여아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인천시 연수구 해당 어린이집 정문에 사과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하라" 경기 지역 공무원노조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중단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처럼 당장 인기는 없지만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한다면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그 짐을 지겠다"며 상반기내 완료를 다짐했다. /연합뉴스

211억 비자금 국방부에 뇌물

최등규 대보회장 등 임직원 무더기 기소

최등규(67) 대보그룹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이 중 일부를 국방부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최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최 회장과 공모해 현직 군인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은 대보그룹 부사장 민모(62)씨 등 3명과 횡령에 관여한 현직 임원 등 5명을 각각 구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 등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료상'을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임직원들에게 허위 상여금을 지급한 뒤 돌려받는 등 수법으로 회삿돈 총 21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이같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계열사 부장과 전·현직 CEO를 포함한 임원 등으로부터 차명계좌 23개를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는 군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회장은 민 부사장 등과 공모하고 군 공사 수주를 위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2011년 1월~2012년 10월 현역 군인 3명 등 국방부 소속 평가심의위원 8명에게 각각 1000만~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거나 주려고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회장은 효과적인 로비활동을 위해 육군 공병장교 출신 등을 섭외해 심의위원에게 돈을 건네도록 하기도 했다. 민 부사장 등은 빵봉투 밑에 현금을 넣어 주거나 심의위원의 사무실에 찾아가 책상 서랍에 돈봉투를 넣고 나오는 등 수법을 썼다. 이들에게 돈을 받은 심의위원들은 평가 당시 대보그룹 측에 1위 점수를 줬고 이에 힘입어 대보그룹이 군 공사를 따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해당 심의위원들을 구속기소하고 브로커들을 불구속기소했다.

/송병형기자 bhsong@

당청 관계 또 찬물 끼얹나

'K·Y 배후설'로 계파간 파열음 재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수첩 속 '문건 유출 배후 K·Y'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궁금증을 자아냈던 영문 이니셜의 당사자가 공교롭게도 원조 친박(친박근혜)계였다가 이제는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되는 김 대표와 유승민 의원인데다 유출 문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십상시'로 지목된 청와대 행정관이 이들을 지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파장을 키웠다.

새해 들어 '리세팅'을 모색하던 당·청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의 여의도연구원장 임명, 당협위원장 선출, 개헌 문제로 당청과 계파간 갈등 지수가 잠복해 있는 국면에서 새로운 악재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나 유 의원은 일단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대표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과 청와대는 한 몸으로 공동운명체라고 생각한다"며 "당·청 간에 간극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소통할 만큼 불편없이 소통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좀 더 밀접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을 없애도록 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친박계에서는 배후설의 실체에도 주목하며 의구심을 품는 분위기다. 한 친박계 의원은 "문건의 제작·유출·유통 과정에 특정 세력이 개입했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안"이라며 "검찰 수사는 끝났지만 이 부분 또한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정기자

"박지만 미행설 사실무근"

정윤회(60)씨 측이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지만 미행설' 등이 검찰 수사로 모두 사실무근임이 확인됐다"며 시사저널 보도가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재판에서 정씨 측 대리인은 "미행설의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검찰조사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며 이같이 주장하고, 검찰 수사결과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어 "관련 당사자가 모두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해 보도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시사저널 측은 "당사자인 박지만씨도 미행설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던 만큼 사실이라고 믿고 보도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의혹을 보도한 것이지 사실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송병형기자

"제2롯데월드 주변 도로 안전 문제없어"

서울시는 지난 6일 제2롯데월드 주변에서 발견된 도로 침하·균열을 조사한 결과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14일 밝혔다.

도로 침하·균열이 발견된 곳은 송파대로 제2롯데월드 롯데몰 앞, 석촌호수로 본가설렁탕 앞, 삼학사로 서울놀이마당 교차로다. 시는 이 3곳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제2롯데월드 앞은 도로 침하가 아닌 것으로 확인했으며 본가설렁탕 앞과 서울놀이마당 삼거리 앞 침하와 균열은 일반적인 포장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국부적인 침하 부분은 굴착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복구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송병형기자

Google Microsoft

윈도 보안 취약 "네 탓"

세계 굴지의 IT기업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날선 자존심 대결을 펼치고 있다.

14일 IT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10월 13일 MS의 최신 운영체제 '윈도 8.1'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 MS 측에 통보하고 90일의 보완 시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90일이 지난 뒤에도 MS가 이에 대한 패치를 내놓지 못하자 구글은 해당 취약점을 공개해버렸다.

MS는 구글의 조치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즉각 올렸다. MS 연구소의 크리스 베츠 시니어 디렉터는 "우리가 1월 13일에 패치를 내놓을 예정이니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부 내용 공개를 미뤄 달라고 구글에 요청했으나 구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글의 이러한 행동은 원칙이라기보다는 '잘 걸렸다'는 것처럼 느껴진다. 구글에게 옳은 것이 늘 고객에게도 옳은 것은 아니다"고 비난 강도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구글은 "절차대로 했을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자제했다.

한편 구글과 MS는 각각 크롬과 인터넷 익스플로러(IE)로 대표되는 인터넷 브라우저 점유율 전쟁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모바일 클라우드 플랫폼과 무료 원격 데스크톱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도 격돌하는 등 경쟁 구도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장윤희기자 unique@

아베 '군사대국화' 헛꿈 꾸나

방위비 예산 역대 최고



지난해 10월 26일 하쿠리 공군기지에서 열린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행사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운데)가 실물크기의 F35전투기 모형 앞에 서 있는 모습. /AP 연합뉴스

'군사대국화'라는 헛된 꿈(?)을 꾸고 있는 아베정권의 행보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아베 신조 총리가 패전 70주년을 맞아 태평양 전쟁의 발발 현장인 미국 하와이 주 진주만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4월 하순~5월 초 미국을 방문할 때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진주만에 들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아베의 이같은 행보는 전쟁에 대한 반성보다는 일본의 전쟁 책임을 털어버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진주만에서 전쟁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고 국제 안보 문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칠 것이란 예측이다. 더 나아가 8월 15일 무렵에 내놓을 예정인 전후 70년 담화(일명 '아베 담화')에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의 의미를 희석하거나 퇴색시키는 표현을 담기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라야마 담화 무력화 시도

아베 정권은 올 방위비 예산도 역대 최고로 확정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총액 96조 3420억 엔(약 870조원) 규모의 2015년도(2015년 4월~2016년 3월) 예산안을 확정했다. 특히 방위비는 전년도보다 2.0% 증가한 4조 9800억 엔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2014년도 추경예산안의 방위비(2110억 엔)를 합산할 경우 약 5조1900억 엔에 달한다.

특히 아베정권은 이번 예산안에 집단 자위권 행사 각의 결정과 관련, 수직이착륙 수송기인 오스프리와 수륙 양용차, F35 전투기 등의 무기 도입 예산을 대거 포함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애플, 착용형 카메라시장도 진출

관련 특허 잇따라 등록

애플이 착용형 카메라와 동작 인식 특허를 잇따라 선보이며 업계 기대를 모으고 있다.

14일 주요 외신들은 애플이 미국 특허청에 착용형 카메라 특허와 동작 인식 기술을 등록했다고 밝혔다.

애플의 착용형 카메라 기술은 자전거 헬멧이나 스킨스쿠버 마스크 등에 장착되는 카메라로 물 속에서도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애플리케이션까지 작동시키는 기능을 담고 있다.

애플의 첨단 착용형 카메라 특허 소식에 미국 최대 스포츠 전문 카메라 제조업체인 고프로 주가는 하락을 거듭했다. 나스닥 13일 기준 고프로 주가는 11.8% 떨어졌지만 애플은 1.37% 상승했다.

한편 애플은 터치 없는 3D 스크린 서비스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한 장면처럼 동작 인식만으로 화면을 움직이고 버튼을 누르는 기술을 상용화하는 것이다.

앞서 삼성과 MS도 동작 인식 기술을 적용한 상품을 선보인 바 있다. 하지만 애플의 이번 특허는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구현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져 IT업계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장윤희기자



해킹·악성코드 꼼짝 못하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가사이버안보정보통합센터(NCCIC)에서 의회에 대해 사이버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날 사이버공격을 받은 기업이 피해 정보를 정부 기관과 더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악성코드의 판매와 사용에 대한 사법기관의 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이버보안 입법 제안'을 발표했다. /AP 연합뉴스

세제 하나 사기 위해 하루종일 줄서야

metro Ecuador

베네수엘라 생필품 쟁탈전 심각

유가 급락으로 신음하는 베네수엘라 경제가 갈수록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 있다.

수도인 카라카스에서조차 생필품 쟁탈전이 벌어질 정도다.

메트로 에콰도르는 카라카스의 거리에서 보이는 것은 오직 긴 줄 뿐이라고 12일(현지시간) 전했다. 식료품부터 기저귀, 비누까지,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발품을 팔아도 부족한 경우가 허다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생필품 부족 현상은 올 들어 더욱 심각해졌다.

카라카스 동부의 한 슈퍼마켓 앞에 줄 서고 있던 리사베트 엘사는 "세탁기 세제를 사기 위해 오늘만



슈퍼마켓 여섯 곳을 뒤졌지만 결국 사지 못했다"며 불평을 터뜨렸다.

지난주에는 베네수엘라 전역의 맥도날드에서 감자튀김용 감자가 모두 동나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사회주의 국가이자 남미 최대의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는 석유 수출을 통해 국가 재정을 충당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는 유가의 영향으로 최근 재정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외화 부족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하기가 어려워졌다.

마두로 대통령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해 원조를 요청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오히려 중국 방문 중 찍은 가족 여행 사진이 화제가 되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민들의 불만은 이것만이 아니다. 카르멘 멜렌데스 내무부 장관이 상점들의 치안 유지를 위해 군병력 투입하고 야간 통행금지까지 실시했다.

이 때문에 군부에 의한 쿠데타 소문까지 나돌아 정국까지 뒤숭숭한 상황이다.

/정리=이국명기자

고공행진 '기술금융', 첫해 9조원 공급

기업·신한·우리銀 선두… 기술력 있는 中企대출 확대 결심

기업의 기술력만을 믿고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금융'실적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1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도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 실적 및 2015년도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은 1만4413건으로 8조9247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규모도 지난해 9월 본격 취급 이후 10월 3020건, 11월 3694건, 12월 4484건 등으로 매달 증가하고 있다.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은 은행 등이 기존의 신용등급 위주의 대출관행에서 벗어나 기술평가기관(TCB)의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대출을 집행하는 것으로 '기술금융'에 속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보수적 영업행태를 개선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코자 '기술금융' 활성화를 유도해왔다.

이 결과 기업이 기술신용평가 기반의 대출을 받을 경우 일반 중소기업 대출 보다 대출금리가 0.38% 포인트(p) 하락한 효과를 보였다. 건당 평균 대출금액도 3억8000만원 증가했다.

대출 유형별로는 은행의 자율대출 건수와 규모가 각각 전체의 59%(8457건), 69%(6조2000억원)를 차지하며 기술신용대출 규모 확대를 견인했다.

실제 은행 자율 대출 규모는 지난해 10월 1895건, 1조3000억원에서 12월 중 3099건, 2조3000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기술보증기금과 온렌딩의 경우 지난 한해 동안 각각 4872건, 1084건에 1조4039억원, 1조3208억원을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IBK기업은행이 총 4064건, 2조2165억원으로 가장 많은 실적을 보였다. 신한은행이 2696건, 1조7360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우리(2258건, 1조3123억원)·하나(1470건, 1조183억원)·국민(1352건, 7464억원)·외환은행(763건, 752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2%로 가장 많은 신용평가 건수를 보였다. 이어 IT 등 기술 서비스업(13%), 건설·인프라 사업(5%) 등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통상적으로 기술이 수반되는 업종이 91%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도소매업(6%), 농림어업 등 기타(3%)으로 집계됐다. 기술등급별로는 10단계(T1~T10) 중 상위 6단계 보통 등급 이상(T1~T6)이 87%에 포함됐다.

대출 성격별로 보면 지난해 말 대출 건수 중 ▲신용대출 80%(부분신용대출 포함) ▲창업기업 대출 50% ▲신규거래기업 대출이 35%로 담보여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증가했다.

비신용대출의 경우에도 담보비중인하, 대출금리 인하, 무형자산 담보 인정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금융위는 분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가 담보여력이 없으나 기술신용평가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담보비중을 인하하고, 해당 차액을 신용대출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하나·외환銀 본협상 시작

하나·외환은행 합병 예비인가 승인이 이르면 이달 중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한조 외환은행장 등 하나금융·외환은행사측과 김근용 노조위원장 등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첫 대화에 나섰다. 외환노조가 '대화기구 발족 합의문' 논의를 중단하고, 곧바로 본협상에 들어갈 것을 공식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사측 5명, 노조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대화단은 통합의 타당성 등 은행 통합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는 이르면 이번주 내로 금융위원회에 합병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본협상에 돌입함에 따라 본격적인 통합 절차를 밟게 되는 것. 이렇게 되면 오는 2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하나·외환은행 합병 예비인가 신청서에 대한 승인이 이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조와의 순조로운 협상 여부가 변수로 남아있어 본인가 신청 제출까지 진통을 배제할 수 없다. /백아란기자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이 14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출입은행 제공

수출입은행, 올해 80조… 사상 최대 지원키로

이덕훈 행장, 중소기업에 26.5억원 투입

수출입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의 추가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목표액보다 5% 늘린 80조원의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14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의 자리매김을 선언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행장은 "유로존과 중국의 경기침체 우려와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화 약세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며 "본부장 중심으로 모든 임직원이 정책금융 전문가로 탈바꿈해 핵심역량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우리 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기회를 늘리기 위해 해외건설·플랜트산업에 27조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박 부문에도 14조5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서비스산업에 2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6조5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비 효율이 높은 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에코십펀드와 지분투자, 중고선 구매자금 지원 등을 통해 국내 3대 해운사의 선대 확충도 지원키로 했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 해운사에 대해서는 긴급운영자금 지원과 주력 선종에 대한 구매자금을 우대 지원하는 등 '중견해운사 육성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수은은 지난해 79조7000억원의 금융을 공급했다. 또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출범시켜 조선·해운·해양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금융지원을 확대했다.

한편 이날 이 행장은 최근 금융권에서 불거진 서금회(서강대 출신 금융인) 논란에 대해 "동문끼리 식사하는 모임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체가 없다"며 정치적인선 개입 의혹을 일축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market index <14일>

지표	수치	등락
코스피	1913.66	(−3.48)
코스닥	574.17	(+3.17)
금리(국고채 3년)	1.97	(−0.05)
환율(원·달러)	1081.50	(−1.70)



'설 선물 뭐가 좋을까'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5 설맞이 명절선물상품전'에서 한 관람객이 전통재래 식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저축은행 가계 빚 급증

저축은행의 가계 대출 증가세가 저축은행 사태 이후 처음으로 5개월째 이어졌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조642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3.4%(3316억원) 늘었다.

예금취급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은행은 1.2%였고 신용협동조합(0.8%), 새마을금고(0.7%), 상호금융(0.5%) 등 순이다.

이로써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6월 말 8조8129억원을 저점으로 5개월째 증가세를 지속해 이 기간에 1조2513억원이나 늘었다.

가계의 저축은행 빚이 이처럼 지속적으로 늘기는 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새로 저축은행업에 뛰어든 대부업체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김민지기자 minji@

연금복권520 제185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20년	3조	706489
		4조	782850
2등	1억원	1등의 전후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780024
4등	100만원	각조	62105
5등	2만원	각조	922
6등	2000원	각조	47, 40
7등	1000원	각조	5, 2

출처 : 나눔로또 공식홈페이지(www.nlotto.co.kr)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현대모비스-글로비스, 지배구조 개편 '촉각'

현대글로비스, 오너일가 지분 매각 불발되자 휘청
지배구조 이슈로 수년째 내리막길 모비스는 역전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기존 시나리오에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지면서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운명이 하루 아침에 뒤바뀌었다.

현대글로비스는 오너 일가의 지분 매각 시도가 불발됐다는 소식에 하한가로 곤두박질친 반면, 그동안 한 발짝 밀려나있던 현대모비스는 개편 수혜주로 떠올라 급등했다.

현대글로비스의 주가는 14일 이틀째 급락세를 이어갔다.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보유 중인 현대글로비스의 주식 매각(대량매매·블록딜) 시도가 무산됐다는 소식에 전날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하고서 15일에도 9% 넘게 하락했다.

당초 현대차그룹 오너일가는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을 통해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다는 관측이 많았다.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1조3000억원 규모의 현금을 마련해 경영권 승계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해석됐다.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따라 총수일가 지분이 30%를 넘는 상장계열사는 200억원 넘는 일감을 몰아줄 경우 제재받는다. 오너 일가는 이번 매각을 통해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보유 지분 43.39%를 29.99%로 낮추려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분 매각 시도가 무산되면서 증권가의 눈은 곧바로 지배그룹의 정점인 현대모비스로 옮겨갔다. 현대모비스 주가가 그동안 지배구조 개편 이슈에 짓눌려 수년째 약세를 면치 못했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최대 수혜주로 거듭나리란 전망이다.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되더라도 그룹 중심인 현대모비스의 지분 확보가 필요해졌다는 점은 공통 전제로 깔린다"고 분석했다.

전날 현대모비스 주가는 11% 넘게 급등했고 한국투자증권과 토러스증권 등은 목표주가를 잇따라 상향조정했다.

현대모비스 주가가 하루에 10% 넘게 급등한 경우는 지난 2009년 이후 6여년 만이다.

그동안 현대모비스는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의 핵심으로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지분 확보를 위해서는 주가가 낮을수록 유리하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7월 말 30만원대이던 주가는 점차 내리막길을 걸어 20만원 초반대까지 밀려났다.

그러나 오너 일가의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 불발로 상황이 일시에 변했다.

김준성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상속 구도와 맞물린 지배구조 변화에서 가장 지배적인 논리는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차 지분 20.8%를 보유한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확보해가는 것"이라며 "실제 지분 취득이 이뤄지면 지배주주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KT&G, 경쟁사 담배값 내려 울상

증권가 목표주가 속속 하향 조정

새해 들어 국내산 담배값이 일제히 인상된 가운데 외산 경쟁업체들은 가격을 내린다는 소식에 KT&G의 주가에 먹구름이 꼈다.

증권사들은 잇따라 KT&G의 목표주가를 하향조정하거나 실적 부진을 우려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1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KT&G는 이틀째 하락하며 7% 넘게 빠졌다. 이날 전 거래일보다 3.35% 내린 7만8000원에 종가를 형성했다.

지난해 8월 초 10만원을 웃돌던 이 회사의 주가는 8만원 안팎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담배값 인상을 전격 결정하면서 주가가 크게 출렁인 KT&G는 최근 경쟁사들의 가격 인하 소식에 추가 부담을 안았다.

이에 주가는 올 들어 지난 8일 8만원대를 회복하는 듯 싶더니 닷새 만에 다시 7만원대로 내려왔다.

KT&G와 경쟁관계에 놓인 필립모리스와 BAT(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 등의 업체는 최근 며칠새 판매제품의 값을 소폭 낮추는 내용의 가격 변경신청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KT&G의 시장 점유율 하락을 예측하며 실적 추정치를 낮췄다.

NH투자증권은 담배회사들이 판매량 방어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장 점유율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모두 낮췄다.

미래에셋증권은 전날 이 회사의 올해 실적 전망치가 기존 기대 수준을 밑돌 것으로 보고 목표가를 내렸다.

한국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담배는 소비자가 가격에 민감한 소비재"라며 "지난 2011년 4월 이래 경쟁사들의 담배값 인상으로 KT&G가 누리던 시장 점유율 수혜를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김현정기자



한화생명, 취약계층 어린이 초청 '경제캠프' 한화생명이 지난 12일부터 3박 4일 동안 경기도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지방 취약계층 어린이 80여명을 초청해 경제캠프를 열었다. 경제캠프를 수료한 어린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보험업계, 설계사 판매채널 확대 추진

GA, 홈쇼핑보다 불완전 판매율 낮고 영업 직접 관리 용이

최근 몇년간 대형독립보험대리점(GA)과 텔레마케팅(TM), 홈쇼핑 등을 통한 보험판매가 증가하면서 불완전판매율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보험업계가 다시 전통 채널인 설계사 중심의 영업을 강화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AIA생명은 전속 설계사를 지원하는 '타깃 리크루팅' 프로그램을 강화키로 했다. 이번 방침은 설계사 채널 강화를 통한 우수 설계사 영입과 지원으로 판매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이 회사는 영업 경력이 없는 20~30대와 경력 단절 여성 설계사들의 교육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라이프는 지난해부터 대대적인 설계사 도입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 회사는 매달 200명의 신입 설계사를 도입하고, 점포 하나당 평균 10여명인 현재 설계사 인원을 3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반면 부실점포 16개는 오는 6월까지 정리한다.

이 밖에도 NH농협손해보험, 신한·하나생명 등도 설계사 지원 방안을 강화하거나 설계사 인원을 확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험업계가 또 다시 전속 설계사 채널을 강화하는 이유는 국내 시장의 경쟁과열로 소비자신뢰 구축에 설계사 채널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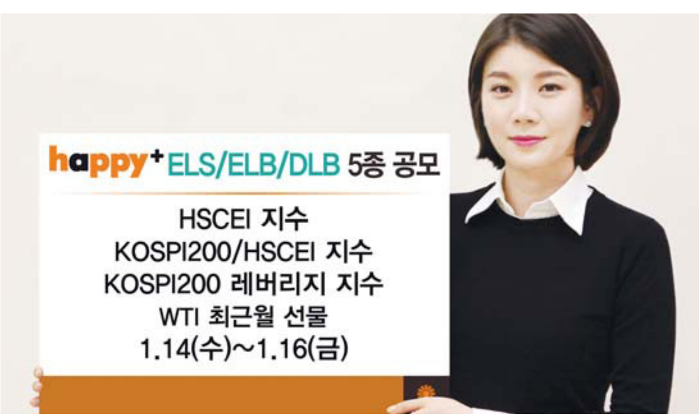
최근 몇년 간 급성장하고 있는 GA의 경우 2012회계연도 기준 불완전 판매율은 9.1%로 전체 생보사(3.8%)와 손보사(2.1%) 평균보다 3~4배 이상 높다.

홈쇼핑 채널도 지난해 상반기 불완전 판매율은 0.57%로 보험설계사 채널 불완전 판매율(0.28%)의 2배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TM의 경우 지난해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으로 3주 영업금지 명령으로 업계가 큰 피해를 보기도 했다.

반면 설계사 채널은 보험사가 직접 영업을 관리하기 쉽고 영업 책임성이 타 판매채널보다 강조된다. 또 회사의 영업방침에 빠르게 전환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더라도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영업방법이 필요하다"며 "이 때문에 보험사들이 설계사 채널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동부증권, ELB·ELS·DLS 5종 판매 동부증권은 오는 16일까지 최고 연 4.3%의 수익을 추구하는 파생결합사채(ELB) 1종과 최고 연 7.92%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가연계증권(ELS) 3종 등을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하는 상품은 원금보장 하이파이브 형태의 ELB 1종과 원금비보장 스텝다운 형태의 ELS 3종, 원금비보장 스텝다운 형태의 파생결합증권(DLS) 1종으로 구성됐다. /동부증권 제공



LG전자 '그램', 삼성전자 '노트북9'.

'가전 라이벌' 삼성 vs LG 내수시장 공략

노트북·세탁기·에어컨 신기능 탑재

국내 가전 라이벌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새해 벽두부터 올해 전략 제품을 잇따라 공개하며 내수시장 공략에 나선다.

예상보다 빠르게 예약판매를 시작한 에어컨부터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개념의 세탁기, 노트북·PC 등 자사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을 전면에 내세웠다.

◆ 초경량 '노트북'

지난해 1㎏ 미만 노트북 '그램'으로 초경량 노트북 시장의 포문을 열었던 LG전자가 올해 새로운 라인업을 추가하며 국내 시장 점유율 높이기에 나선다.

LG전자는 2015년형 신제품으로 14인치 국내 최경량 노트북 '그램14'를 선보였다. 화면 크기는 키운 반면 무게를 낮췄다. 지난해 LG전자가 처음 출시한 '그램'은 1㎏ 미만의 그램 단위 무게가 가장 큰 특징. 13.3인치 화면 크기에 테이크아웃 커피 두 잔 정도에 불과한 980g의 가벼운 무게를 구현했다.

올해 신제품인 '그램14'는 화면크기가 14인치로 전작에 비해 더 커졌지만 무게는 물론 13.4㎜ 두께도 그대로 유지했다. 국내 출시된 14인치대 노트북 가운데 가장 가벼운 수준으로 한국기록원으로부터 인증도 받았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삼성전자도 초경량 노트북을 내놨다. 삼성전자는 초박형·프리미엄 노트북 라인업인 '노트북9'의 신제품으로 12.2인치 '노트북9 2015년 에디션'을 출시했다.

두께 11.8㎜, 무게 950g으로 삼성전자 노트북 중 가장 얇고 가볍다. 화면 크기를 12.2인치로 줄이면서도 13.3인치와 동일한 화면비율을 유지한 것이 특징이다.

◆ 똑똑한 '에어컨'

삼성전자는 외형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았지만 내부를 강화한 '2015년형 스마트에어컨 Q9000'을 선보였다.

전년비 최대 20% 개선된 초절전 강력 냉방과 청정제습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 탑재한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온도습도청정도를 눈으로 확인하며 실내 공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LG전자는 두 개의 토출구를 적용한 '휘센 듀얼 에어컨'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했다.

휘센 듀얼 에어컨은 양쪽 냉기 토출구로부터 나오는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각각 조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맞춤 냉방이 가능하다. 또 하나의 토출구만 사용해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다. 한쪽 토출구만 사용하면 양쪽을 모두 사용할 때보다 소비전력이 최대 40%까지 줄어든다.

◆ 신개념 '세탁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올해 세탁기 부문에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양사 모두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개념의 세탁기를 공개했다는 점에서다.

삼성전자의 신개념 세탁기 '액티브워시'는 개수대와 빨래판이 일체형 형태로 된 세탁조 커버 '빌트인 싱크'와 애벌빨래 전용 물 분사 시스템인 '워터젯'을 적용했다.

빨래를 세탁기에 넣기 전 손으로 해야 했던 찌든 때 제거나 섬세한 의류 세탁 등 애벌빨래가 가능하다. 세면대에서 애벌빨래를 마친 후 세탁기로 옮겨야 하는 수고를 덜어준다는 아이디어를 현실화했다.

반면 LG전자는 대용량 드럼세탁기와 소형 미니 세탁기를 결합한 '트윈 세탁 시스템'을 내세웠다. 대용량 세탁기와 미니 세탁기를 따로 혹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양성운기자 ysw@

'샤오미·화웨이'에 선전포고

인도에 9만9000원 삼성 Z1 출시
러시아에는 35만원 갤럭시 E5 투입



삼성전자가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 탈환에 나섰다.

인도, 러시아 등 신흥국에 10만~30만원대의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샤오미, 화웨이, 레노버 등 중국 브랜드에 빼앗겼던 시장을 되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프리미엄군에서 갤럭시S시리즈로 애플 아이폰과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는 삼성이지만 중저가 시장에서는 최근 1~2년간 재미를 보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14일 인도 뉴델리에서 론칭 행사를 열고 타이젠 스마트폰 '삼성 Z1'을 출시했다. 가격은 업계 예상치보다 낮은 5700루피(약 9만9000원)다.

이 제품은 개방형 멀티플랫폼인 타이젠 OS에 기반한 스마트폰이다. 타이젠은 OS 특성상 가볍고 빨라서 타이젠폰은 부팅은 물론 앱 실행 속도가 빠르다는 평가다.

인터넷 성능도 좋아 웹페이지를 불러오는 속도가 향상되고 데이터 사용량도 타 OS 기반 스마트폰보다 절감할 수 있다고 삼성전자 측은 설명했다.

'삼성 Z1'에는 4.0형 디스플레이, 1.2㎓ 듀얼코어 프로세서, 듀얼 심카드, 1500mAh 용량의 배터리가 장착됐다.

주요 기능으로는 초절전모드, SOS 알림, 안티바이러스 백신 등이 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인도의 '삼성 Z1' 소비자를 위해 70여 개 라이브 TV채널과 23만 곡 이상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클럽 삼성', TV·영화·음악 콘텐츠가 담긴 '조이박스'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이달 초 중저가 전략 모델인 갤럭시A·갤럭시E 시리즈를 인도에 내놓았다.

삼성전자는 23일 30만원대 스마트폰 '갤럭시E5'로 러시아 시장을 노크한다.

갤럭시E5의 러시아 출고가는 1만9990 루블(약 35만2000원)이다. 이 제품에는 5인치 HD 슈퍼아몰레 디스플레이, 퀄컴의 스냅드래곤 410 프로세서가 탑재됐다.

또 1.5GB 램, 16GB 내장메모리, 800만 화소 후면카메라와 500만 화소 전면카메라가 적용됐다. 배터리 용량은 2400mAh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베트남 북부 타이응우옌성 옌빈공단에 있는 제2 휴대전화 공장 생산능력을 연산 1억2000만대 수준에서 1억7000만대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3만1000명이 일하고 있는 이 공장에 생산인력 1만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곳에서는 올 상반기부터 중저가 스마트폰 추가 생산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한화, 신임 임원 소외계층 찾아 봉사활동 한화그룹 신임 임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외계층 가정을 방문해 벽지·장판 교체 등 주거 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한화 제공

이재용 부회장 경영화두 던질까?

삼성 19일 신임 임원 상견례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그룹 신임 임원들과 만찬을 할 가능성이 커져 어떤 '플랜'을 밝힐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4일 삼성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기 인사에서 승진한 삼성그룹 신임 임원들은 15일부터 4박5일간 경기도 용인 인력개발원에서 합숙 교육을 받는다.

임원들은 이 기간 중간 관리자로서의 조직관리, 기본 매너 등에 대해 공부할 예정이다.

특히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신라호텔에서 부부동반 만찬이 있다. 이 부회장뿐 아니라 삼성 계열사 사장단이 참석해 신임 임원들과 상견례를 할 예정이다.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 사실상 그룹을 이끌고 있는 이 부회장이 새해를 맞아 처음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낼 공산이 큰 만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에 삼성그룹은 물론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만찬 참석 여부는 그 날 가봐야 안다. 참석을 하더라도 행사를 주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조동호 이화여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이날 '통일과 남북경협'을 주제로 한 삼성 수요사장단 회의에서 "김정은의 북한은 안정적인 가운데 불안정 요인도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김정은 중심 체제가 확실히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극화와 부의 편중이 심화되고 있으며 상류층과 하층민간 20배 이상 격차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시장경제가 성장하면서 계획경제가 붕괴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라 조교수는 햇볕정책과 강풍정책 등 현재의 대북정책은 둘다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북한이 입고 있는 것은 '옷'이 아닌 '문신'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기자

이통사 5:3:2 점유율 고착화

고객 혜택 증가 차원 타개책 절실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5(SK텔레콤):3(KT):2(LG유플러스)의 시장점유율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자율경쟁체제를 통해 고착화된 시장점유율을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고객 혜택이 보다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10여년이 넘도록 깨지지 않은 5:3:2의 이동3사 시장점유율이 단통법 시행 이후 고착화되고 있다. 특히 단통법으로 인해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가입자간 휴대전화 보조금에 대한 차별화가 사라지면서 번호이동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1~9월 기기변경 가입 비율은 26.2%였다. 기변 가입 비율은 법 시행 이후인 12월 현재 41.0%로 14.8%포인트 증가한 상황이다.

반면 번호이동 가입자 비율은 지난해 1~9월 38.9%에서 12월 29.7%로 9.2%포인트 감소했다.

번호이동 가입자 비율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동사를 옮기는 이유가 사라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단통법 시행 이전엔 기변 가입자에겐 보조금이 거의 제공되지 않는 반면 번호이동 가입자에겐 보조금이 대폭 제공되면서 이동사를 변경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물론 보조금을 대폭 제공해 가입자를 끌어오는 것이 제대로 된 시장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이동사가 가입자를 끌어온 뒤 장기 고객 확보로 연결하기 위해서라도 고객 혜택 강화를 위해 고민해야만 한다는 데서 필요악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과론적으로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상황이 모두 변화됐다.

시장점유율 고착화가 이어지면 그만큼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자사 가입자만 꾸준히 유지해도 마케팅비는 줄이면서 매출은 확대, 그만큼 영업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특히 휴대전화의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망내 무제한 요금제만 하더라도 휴대전화 이용자 2명 중 1명과 무제한 통화가 가능, 서비스에서도 우위 효과를 점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시장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타개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실제 이동사간 차별화된 서비스가 사라져가고 있다. 특정 이동사에서만 서비스되는 단말도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통사가 자사만의 색깔있는 서비스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그동안 통신업계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를 위해 차별화된 보조금 지급, 특정 혜택 제공 등을 해왔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모든 것이 불법이 돼 버렸다"면서 "현재 이동시장에서 특정 업체가 자신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마련하기란 매우 어렵다. 한 곳에서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으면 당일 똑같은 요금제를 타사에서 볼 수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렌즈교환식 카메라 성장' 렌즈 경쟁 치열

하이엔드급 기종 제품 출시 이어져

DSLR, 미러리스 카메라 등 렌즈를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렌즈교환식 카메라 시장이 커지면서 연초부터 '렌즈'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DSLR과 미러리스 카메라를 합친 렌즈교환식 카메라의 국내 시장 규모는 연 50만대 수준이다. 특히 미러리스 카메라는 두자릿수 이상의 성장율을 기록하며 꾸준히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렌즈교환식 카메라의 장점은 자신이 원하는 촬영환경에 맞는 다양한 렌즈 제품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최근 하이엔드급 기종이 인기를 끌면서 이에 맞춘 렌즈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렌즈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14일 니콘이미징코리아는 DSLR카메라 'D5500'을 비롯해 다양한 렌즈를 소개하고 있다. 'D5500'은 휴대성과 편의성이 높은 D5300의 업그레이드 제품이다. 후지필름 XF16-55㎜ 렌즈.(작은 사진) /연합뉴스

후지필름 일렉트로닉 이미징코리아는 하이엔드급 미러리스 카메라를 위한 렌즈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생활방수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표준 줌렌즈 '후지논 XF16-55㎜ F2.8 R LM WR'을 공개했다. 이 렌즈는 풍경 사진에 적합한 24㎜ 광각부터 인물 촬영에 이상적인 84㎜ 준망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촬영 범위를 아우르면서 무게 655g로 휴대성도 높다.

후지필름 관계자는 "최근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이 셀카를 즐기는 여성을 타깃으로 한 제품과 준전문가를 위한 하이엔드 제품으로 양분되고 있다"며 "여러 렌즈가 구비돼 있다는 이유로 DSLR 카메라를 사용하는 준전문가급 소비자를 미러리스 카메라로 끌어오기 위해 다양한 고급 렌즈군에 주력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통적인 렌즈교환식 카메라 DSLR을 위한 렌즈 신제품도 연초부터 공개되고 있다. 니콘이미징코리아는 14일 DSLR 신제품 D5500과 함께 렌즈 2종을 공개했다. 니콘의 신제품 렌즈 2종은 휴대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FX 포맷 망원 단초점 렌즈 'AF-S NIKKOR 300㎜ f/4E PF ED VR'은 현재까지 출시된 FX 포맷에 대응하는 초점거리 300㎜ 렌즈 중 가장 가볍다. DX 포맷 망원 줌 렌즈 'AF-S DX NIKKOR 55-200㎜ f/4-5.6G ED VR II'는 카메라 렌즈가 본체 안에 수납되는 형태로 크기와 무게를 줄인 침동식 구조를 채택해 휴대성을 강화했다.

광학산업에서 국내 업체는 긴 전통을 가진 일본 업체에 다소 밀리는 양상이지만 좋은 제품을 내놓으며 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삼양옵틱스는 지난 12일 풀 프레임 사이즈의 센서에 대응하는 수동 초점 렌즈 '135㎜ F2.0 ED UMC 망원 포토 렌즈'를 발표했다.

풀 프레임 카메라를 위해 만들어진 망원 렌즈로 먼 거리의 피사체를 또렷하고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삼양옵틱스는 삼성전자·캐논·니콘·소니 등 여러 제조사의 제품에 맞는 10개 마운트의 렌즈를 출시해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킨다는 방침이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대기업 여성 임원 '梨, 서, 延'이 대세

3개大 비중 50% 육박

이화여대, 서울대, 연세대 출신 여성 임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임원이 있는 대기업은 4곳 가운데 1곳에 그쳤다.

14일 기업분석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는 30대 그룹 280개 계열사의 여성 임원 현황을 분석했더니 여성 임원은 총 177명으로 이들이 재직 중인 곳은 76곳(27.1%)에 불과했다.

특히 여성 임원은 외부 영입 인사가 110명(62.1%)으로 자사 출신(53명, 29.9%)보다 배 이상 많았다. 이들을 뺀 나머지 14명은 대주주 일가로 파악됐다.

미래에셋(4명), OCI(3명), 코오롱(3명), 동부(1명)는 여성 임원 전원이 외부영입 인사였다. 한화(7명 중 6명), SK(12명 중 10명), 현대백화점·현대차(각 6명 중 5명), 롯데(5명 중 4명)도 외부영입 여성임원 비율이 높았다. 반대로 공채 출신의 여성임원은 LG그룹이 13명 중 8명으로 가장 많았고 포스코·GS·금호아시아나는 모두 2명의 여성임원중 1명이 내부 승진이었다.

신세계는 여직원 비중이 62.3%로 30대 그룹 중 가장 높았지만 자사 출신 여성 임원 비중은 14.3%(7명 중 1명)에 그쳤다.

이들 여성임원은 직군별로 영업 마케팅이 48명(27.1%)으로 가장 많았다. 상품개발·생산 등 기술부문이 34명(19.2%), 경영·사업부 등 기획부문이 32명(18.1%) 순이었다.

이들 대기업 여성임원은 이화여대 졸업자가 26명, 서울대 졸업자가 25명, 연세대 졸업자가 21명으로 이들 3개 대학 출신(72명)이 42.8%를 차지했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과 정유경 부사장은 모녀가 이화여대 출신이고 심수옥 삼성전자 부사장, 82세로 30대 그룹 내 최고령 여성 임원인 손복남 CJ제일제당 고문 등도 이대를 나왔다.

/박성훈기자 zen@

후지필름, 사진작가와 함께하는 세미나

후지필름 일렉트로닉 이미징 코리아가 사진작가와 함께 신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X-포토그래퍼와 함께하는 신제품 세미나'를 오는 25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지난 12월 출시된 XF50-140㎜F2.8 R LM OIS WR, XF56㎜F1.2 R APD와 2월 국내 출시 예정인 XF16-55㎜F2.8 R LM WR 등 프리미엄 후지논 렌즈 신제품 3종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특히 후지필름 프리미엄 카메라 라인업 X시리즈를 사용하는 글로벌 사진작가 그룹 'X-포토그래퍼'로 활동 중인 광모 작가가 전문가급 미러리스 카메라 X-T1과 신제품 렌즈로 직접 촬영한 사진들을 보여주며 후지필름의 성능들을 전달할 예정이다.

참가자 모집은 오는 20일 까지며, 세미나는 서울 광진구 능동에 위치한 후지필름 스퀘어 군자점에서 오는 25일 오후 1시부터 3시간가량 진행된다.

/양성운기자 ysw@

KT - 적십자사, 재난대응체계 공동 구축

적십자 구호 인프라에 ICT 노하우 접목
황창규 회장 "글로벌로 서비스 모델화"

"ICT 기반 재난 감시 구호 체계를 서비스화 해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시키겠다."(황창규 KT 회장)

KT와 대한적십자사가 비상상황 감시와 구호지원 등 재난안전분야 대응 체계를 공동 구축하기로 했다.

황창규 KT 회장과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14일 적십자사 본사 사옥에서 비상상황 감시, 구호지원 등 재난안전분야 토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적십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국 14만 봉사자와 전문 요원·장비·물품 등 구호 인프라에 KT의 ICT 노하우를 접목해 실시간 감시부터 상황 전파·공유, 현장 구호활동 지원까지 재난대응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요 협력분야는 ▲현장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구호활동 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LTE 무전기 보급 ▲재난 발생 시 KT그룹 임직원의 구호활동 적극 참여 등이다.

새로 구축되는 시스템은 전국 곳곳에서 활동 중인 봉사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재난현장과 위험상황 관련 영상을 대한적십자 본사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데이터베이스(DB)화된 영상정보 분석을 통해 관련 공공기관과 연계한 재난사고 예방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룹통화 기능 등으로 일사불란한 구호활동을 지원하는 LTE 무전기도 보급한다. KT는 지난해 10월 KT파워텔이 세계 최초로 상용 출시한 재난 전용 LTE 무전통신 단말기 '라져 1(RADGER 1)' 48대를 대한적십자 본사와 전국 14개 지부에 나눠 제공한다.

이 밖에 재난 발생 시 양사 간 신속한 상황공유와 함께 대한적십자사의 구호활동에 KT그룹 임직원들이 적극 참여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한적십자사는 KT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구호활동 교육을 시행하고, KT는 IT서포터즈를 통해 재난통신 관련 IT기기 활용법 등을 전수할 계획이다.

황창규 회장은 "대한적십자사와의 이번 협력은 KT만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를 기반으로 재난대응체계를 혁신하고 이를 통해 국민안전을 보다 구체적으로 현실화해 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ICT 기반 재난 감시·구호 체계를 서비스 모델로 개발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KT 제공

LG U+비즈 세금계산서 전자계약 통합

서류 주고받지 않아 편리

LG유플러스는 'U+ Biz 전자세금계산서'에 그동안 별도 서비스로 제공해 온 '전자계약'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U+ Biz 전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업무를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건별 발행, 엑셀 파일 업로드를 통한 대량 발행, 이용 기업 내부 시스템과의 연동 발행 등 다양한 발행 방식을 제공하고 국세청 전송까지 가능하다.

'전자계약' 기능은 종이 형태의 계약 문서 형식에서 벗어나 온라인에서 계약 문서 작성·전송, 전자 서명 처리 등을 해 당사자가 직접 대면하거나 서류를 주고 받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

그동안 'U+ Biz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약'을 모두 이용할 경우 각 사이트에 따로 가입을 한 후 이용 서비스에 따라 공인인증서도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U+ Biz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에 '전자계약'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이 같은 이용자의 번거로움을 없앴다.

이에 따라 'U+ Biz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의 ID만 있으면 서비스 내에서 전자계약 기능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U+ Biz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인증서를 발급 받으면 '전자계약'에 필요한 전자서명도 별도 인증서 발급 필요 없이 등록,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또 동일한 계약서로 여러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해야 할 때 한번에 계약서를 각 업체에 전송할 수 있는 '다중계약서' 기능도 추가했다. /이재영기자



SK텔레콤, '찾아가는 A/S센터' 운영 SK텔레콤은 직접 AS센터를 방문해 휴대전화 수리를 받기 어려운 고객을 위해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AS센터'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5곳에서 연중 운영되며 센터 배치 스케줄은 SK텔레콤의 SNS 계정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SK텔레콤 제공

SK C&C, IoT기반 물리적 보안솔루션 출시

SK C&C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종합 물리적 보안 솔루션 '넥스코어 와츠 아이(NEXCORE Watz Eye)'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개방형 플랫폼인 '넥스코어 와츠 아이'는 윈도·유닉스·리눅스 등 다양한 운영체제(OS) 지원은 물론, 국가별 언어 지원 기능도 갖췄다. 이에 IoT를 기반으로 보안 기기·솔루션의 장벽과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최적의 물리적 보안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넥스코어 와츠 아이는 ▲폐쇄회로TV(CCTV) ▲울타리 등 고정 시설물에 설치된 감시케이블 ▲광센서·움직임 탐지용 레이더 센서인 마이크로웨이브센서·열적외선센서 ▲경고방송·경광등 ▲출입문 등 모든 감지·보안 장비를 화면 형태의 대시보드상에서 연계·조작한다.

사전에 정의된 침입 유형별 시나리오에 따라 ▲장비별 알람 발생 ▲상황 발생 지점 영상 표출 ▲출입통제 ▲3D 지도 상에서 사고 발생 위치 표출과 추적 ▲경찰·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조 등 침입 탐지부터 추적·통제·차단 등 모든 침입 상황을 관리한다.

보안 관계자들은 센터 상황실의 상황판을 보며 모든 침입 상황을 한 눈에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또 화면 형태의 대시보드상에서 별도의 개발(소스 코딩) 없이 간단한 마우스 동작(드래그 & 드랍)만으로 보안기기와 솔루션을 추가·삭제할 수 있고 새로운 보안 시나리오를 바로 적용할 수 있다. /이재영기자

현대차, 호주서 28년 만에 연 10만대 돌파

도요타·홀덴·마쓰다 이어 4번째

현대자동차가 호주 진출 28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판매 10만대가 넘는 기록을 세웠다.

14일 호주자동차등록통계청(VFATS)에 따르면 현대차의 작년 호주에서의 판매량은 10만11대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9만7006대)보다 3.1% 증가한 수치로 현대차가 호주 시장에서 거둔 역대 최고 성적이다.

호주 시장에서 연간 판매 10만대를 넘어선 업체는 도요타, 홀덴, 마쓰다에 이어 현대차가 4번째다. 이 가운데 도요타와 홀덴은 현지에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호주 시장에서 상위 5개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전년보다 판매량이 늘며 마쓰다(10만704대)에 이어 4위에 올랐다. 지난해 현대차의 호주 시장 점유율은 9.0%다.

이같은 실적 호조는 총 3만1505대가 팔린 i30가 이끌었다. ix35(국내명 투싼ix), i20이 각각 1만7922대, 1만4979대로 뒤를 이었다. 특히 ix35는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차량(SUV)에서 점유율 22.2%로 최다 판매 모델로 등극했고, i20도 경차급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현대차는 호주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가 향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호주 시장에서 팔리는 차량 대부분은 국내 공장에서 수출되는 차량이다. 지난달 발효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호주 신차평가테스트에서 역대 최고 점수를 획득한 제네시스가 올해부터 호주 시장에 본격적으로 판매될 예정인 것도 호재로 꼽힌다. /김종훈기자 fun@



안전한 산업현장, 행복한 대한민국 4대 필수안전수칙이 만들어 갑니다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일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도 그 출발은 안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안전을 실천할 때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 4대 필수안전수칙에서 시작됩니다.

보호구 지급·착용 기계 · 설비 등 유해 · 위험 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 · 착용

안전보건 표지부착 근로자가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하지 않도록 위험장소 · 설비 · 작업별 안전보건표지를 부착

안전보건 교육실시 작업 전에 모든 작업자가 유해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안전한 작업방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안전작업 절차 지키기 정비, 보수 등의 비계획작업 또는 잠재 위험이 존재하는 작업공정에서 지켜야 할 안전작업 절차 제정 및 확행을 통해 안전한 작업 유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연애 상담·사주 풀이 능력도 거래합니다

취업토크

■ '오투잡' 최병욱 대표



'여자친구 마음 돌리는 법 상담해드려요' '동영상 편집 도와드립니다' '연애 편지 대필해요' '중국어 통번역 해드립니다'….

누구나 소소한 재능 하나씩은 갖고 태어난다. 유명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반인 눈높이에서 서로의 재능을 나눌 수 있다면 생활이 풍족해지지 않을까. 청년 벤처 최병욱(30) 대표는 이같은 점에 착안해 재능을 거래하는 오픈마켓 '오투잡'을 만들었다. 오투잡은 '오 놀라운 나의 두번째 직업(JOB)'이란 뜻이다.

최 대표는 "대학 시절 인터넷 카페에서 '5000원에 모닝콜 해드립니다' 등의 서비스가 거래되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면서 "사람들의 재능을 신뢰있게 중개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재능거래 오픈마켓이란 생소한 개념에도 불구하고 오투잡은 운영 3년만에 회원 4만명, 월 주문수 3000건, 월 거래액 1억원을 돌파했다. 또래 동업자도 4명으로 늘어났다. 초기 창업비용은 정부 지원금 5000만원으로 마련했다.

최 대표는 '판매자가 오투잡에 올리는 재능은 진정으로 좋아하고 자신있어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구매자 만족도가 높고, 판매자가 본업을 병행하면서 오투잡에 열중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 연애 상담부터 전문 통역까지 다양

오투잡 재능은 온라인으로 거래될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둔다. 구매자가 재능을 구입하면 판매자가 e메일 등으로 상품을 보내는 식이다. 주로 포토샵 디자인과 외국어 번역의 거래가 많지만 SNS 마케팅 대행, 연애 상담, 사주 풀이, 여행계획 컨설팅 분야의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다.

재능 한 건당 거래 비용은 최소 5000원부터 시작하며 최대 거래금액 상한선은 없다. 여기서 오투잡이 판매 금액의 20%를 수수료로 가져가며 판매자가 80%를 받는다. 디자인을 전공한 한 회원은 로고 제작으로 한달에 200만원 수익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판매자 재능에 제한은 없지만 프로필 인증제도 등의 깐깐한 승인을 거쳐야 한다. 최 대표는 "예를 들어 번역 재능을 거래하고 싶다면 번역 예시 등을 첨부해 신빙성을 입증해야 한다. 거래에 혼선이 없도록 폰트와 글자 크기, 장당 희망 금액과 옵션 여부까지 꼼꼼히 기록하게 한다"고 말했다. 연애 상담처럼 증빙이 모호한 분야라도 상담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기획안을 적어 내야 판매자로 등록될 수 있다.

한편 최 대표는 주변의 우려를 딛고 오롯이 창업의 길을 걷고 있다. 그는 "삶의 기준이 다를 뿐"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이 아닌 '명성'을 좇는 모습에 회의를 느꼈다. 모든 사람들이 재능을 직업으로 삼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장그래'보다도 못한 취업 현실

청년 20% 1년 이하 계약직

취업 시장에 아랫목만 온기가 돌고 있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12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어났지만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12월·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559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53만3000명이 증가했다. 이는 2002년(59만7000명) 이후 최대치다. 특히 2010~2013년의 평균 취업자 증가 폭이 39만명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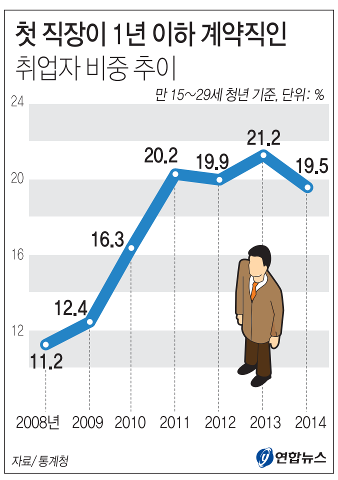
비경제활동인구는 20만명 넘게 줄었다. 15~64세 고용률도 역대 최대인 65.3%를 기록했다.

하지만 청년층 고용의 질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년 전보다 1.0%포인트 늘면서 9.0%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청년 취업자 중에서도 34.8%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만둬야 하거나 일시적으로만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취업자 3명 중 1명이 고용이 불안정한 곳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셈이다.

특히 청년 취업자의 19.5%는 계약기간이 2년인 드라마 '미생' 속 주인공 장그래보다 못한 처지인 1년 이하의 계약직으로 사회생활의 첫발을 내딛었다.



◆정규직 전환율 11.1% 그쳐

문제는 비정규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한 청년층 상당수가 2년마다 직장을 옮기며 비정규직을 전전하거나 아예 실업상태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3년 비정규직 이동성 국가 비교'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비정규직이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11.1%에 그쳤다. 계속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율이 69.4%, 아예 실업 상태로 떨어지는 비율은 19.5%였다.

김두순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비정규직이 괜찮은 일자리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



올 계획 제대로 세워볼까 14일 다이어리데이를 맞아 서울 롯데피트인 동대문점을 찾은 연인들이 다이어리를 고르고 있다. 다이어리데이는 매년 1월 14일로 소중한 사람에게 일 년 동안 쓸 수 있는 다이어리를 선물하는 날이다. /롯데자산개발 제공

잡코리아·사람인 정보를 한 번에~

취업 검색 '잡서치' 오픈

키워드 하나만 검색하면 원하는 취업정보를 찾아주는 똑똑한 검색엔진이 등장했다.

취업포털 파인드잡은 이같은 장점을 지닌 '잡서치'를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

'잡서치'는 검색 창에 원하는 직무와 지역 등 키워드만 입력하면 관련된 모든 온라인 채용정보를 찾아주는 것이 장점이다.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등 취업포털 사이트를 일일이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특히 기업홈페이지에 등록된 공고까지 검색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다.



잡서치에 접속하면 취업 동향을 한눈에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방문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일반 인기검색어'와 직종별 검색순위를 나타내는 '직종 인기 검색어'를 매일 업데이트해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최인녕 잡서치 대표는 "잡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채용공고를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풍성한 정보력과 신속함이 생명인 구직자들에게 필수 검색 엔진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국명기자

상가 홍보관 아닌 모델하우스 선보여, 집객효과↑

지식산업센터 등 특허기술 지원에 임대수익 보장까지

저금리 기조와 함께 수익형부동산 공급이 봇물을 이루면서 건설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 공략에 나서고 있다. 특히 고객과의 신뢰도 구축을 통해 집객과 구전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위례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위례3차 아이파크 애비뉴' 상업시설의 모델하우스를 최근 오픈했다. 현장 인근 가건물에 소규모 홍보관을 짓는 여타 상가와는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다.

분양 관계자는 "상가는 아파트만큼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주로 상담이나 계약 업무 정도를 볼 수 있는 소규모 홍보관을 두는 경우가 많다"며 "고객들에게 투자해도 안심할 수 있는 상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지었다"고 설명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울산 화정동 일대 공급하는 '엠코타운 이스턴베이' 단지 내 상가 역시 과거 아파트를 분양할 때 지은 모델하우스를 활용해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을 투자자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익형부동산의 틈새상품으로 떠오른 지식산업센터도 차별화 마케팅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현대건설이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7블록에 선보인 'H 비즈니스파크'는 입주자를 위해 특허기술을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문정지구 6·7블록은 국내 처음으로 '특허기술 상용화 플랫폼(PCP)'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곳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허기술을 일정 조건(최대 1년간 무상 라이센싱) 동안 지원 받는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의 R&D 사업과 연계해 특허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게 됐다.



인천 송도 스마트밸리에서 입주기업을 위한 금융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우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 중인 '송도 스마트밸리'는 입주기업을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전문적인 금융·법률·특허·고용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와 함께 일자리 컨설팅과 합동설명회 등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입주 기업의 고용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비스나 수익보장 등의 마케팅 활동을 통해 수요자 마음잡기에 나선 오피스텔도 있다.

우양토건이 경북 포항시 해도동 일원에 짓는 '포항 엘리시움'은 입주민들에게 모닝콜, 각종 예약 대행, 콜서비스, 객실청소대행 등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해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또 한국토지신탁이 광주전남혁신도시 상업용지 6-3-1블록에서 분양 중인 '포레루체' 오피스텔은 임대수익보장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입주 이후 정상적인 잔금납부를 한 세대에 한해 보증금 500만원에 월 45만원을 2년간 보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수익형부동산 공급이 활발해지고 상품도 다양해짐에 따라 소비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특화 마케팅이 인기"라며 "아파트와 같은 거주상품이 아닌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감성보다 신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스키 배우기 재밌어요' 14일 강원도 홍천군 대명리조트 비발디파크 스키월드를 찾은 어린이들이 스키강습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시장 기대감 높아져… 부동산3법 약효?

지난해 10월 이후 내림세를 걷던 주택시장 기대감이 올 들어 상승 반전했다.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3법의 영향이 컸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월 주택경기실사지수(HBSI)를 조사한 결과 주택시장 전반의 동향을 나타내는 주택사업환경지수 전국 전망치가 전달보다 17.6포인트 오른 122.8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이 8.0포인트 빠진 107.0에 그쳤지만 수도권이 19.2포인트나 올라 121.8을 기록했다.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이 25.5포인트 상승하며 134.5로 집계됐다. 이어 경기가 21.9포인트 오른 129.5, 인천은 16.6포인트 뛴 114.0이었다.

지방에서는 정부 청사가 이전한 세종시와 부산이 각각 8.7포인트와 0.6포인트 오른 115.6, 113.7을 가리켰다. 하지만 이곳을 제외하곤 모두 주택사업환경지수가 낮아졌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3년 유예,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담은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서울·수도권의 기대감을 높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주택사업환경지수는 7·24대책, 9·1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나온 지난해 8~10월 상승했으나 이후 대책의 효력이 감퇴하면서 11·12월에는 하락했다.

나머지 지표들 역시 계절적 비수기인데도 대체로 호조를 보였다.

분양계획지수는 6.8포인트 오른 105.6, 분양실적지수는 1.7포인트 오른 108.9, 미분양지수는 1.4포인트 낮아진 61.0이었다. 분양계획지수와 실적지수는 높을수록, 미분양지수는 낮을수록 기대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주택건설 수주 가능성을 나타내는 재개발지수와 재건축지수, 공공택지지수도 모두 전달보다 상승했다. 재개발지수가 1.1포인트 오른 95.6, 재건축지수가 2.8포인트 오른 101.8, 공공택지지수가 6.9포인트 오른 116.4로 잡계됐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주택시장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전세난, 월세 비용 부담 등이 다수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정을 지속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매매가 보다 비싼 전셋집 99만 가구

계속된 전세난으로 아파트 평균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 가구수가 전국적으로 99만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 2억8664만원보다 비싼 전세 가구수는 99만6171가구다. 전체 648만990가구의 15%에 달하는 수치로, 2006년 조사 이후 역대 최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0만1792가구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경기 28만6908가구, 인천 1만3082가구 등 수도권에만 90만1782가구가 몰려 있었다.

각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송파구 7만8866가구, 강남구 7만6685가구, 성남시 7만3502가구, 서초구 5만9010가구 순이었다.

이 중 송파구는 대규모 새 아파트가 집중된 잠실동(2만5452가구)과 신천동(1만3518가구)에 집중됐다. 강남구는 학군 수요가 많은 대치동(1만5132가구)과 도곡동(1만3188가구)에 평균 매매가보다 비싼 전셋집이 많았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3만2590가구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산 2만8040가구, 경남 8148가구, 대전 7744가구가 뒤를 이었다.

대구에서는 주거여건이 좋은 수성구 범어동(7207가구)이, 부산에서는 해운대구 우동(5240가구)과 재송동(4373가구)이, 경남에서는 창원시 양덕동(1532가구)과 명서동(1054가구) 등의 전세가가 높았다.

김미선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제자리걸음을 걸은데 반해 전세가는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전세의 월세 전환, 강남지역 재건축 이주 등과 맞물려 매매가보다 비싼 전셋집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선옥기자



양띠 와인 '르 그랑누아' 맛보세요 와인수입사 금양인터내셔날이 양의 해를 맞아 14일 이마트 용산점에서 와인라벨에 양이 그려진 프랑스 리무 지방의 와인 '르 그랑누아' 4종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서 백화점 정기세일한다"

추가 할인·쿠폰 공세… "온·오프라인 연계해 시너지 효과"



온라인 유통 업계가 백화점 정기세일 기간에 맞춰 잇따라 프로모션을 전개하고 있다. 운영하고 있는 백화점관에서 쿠폰이나 할인율을 더 얹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정기세일 참여 브랜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 보다 더 좋은 혜택으로 쇼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갤러리아 등 주요 백화점은 1월 첫 주부터 신년 세일에 들어갔다. 이 기간 이들이 입점한 온라인 몰에서도 연계 프로모션을 전개해 신년 특수 공략에 가세한 것이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이 입점한 CJ 몰은 각각 백화점관에서 아웃도어·패션·잡화 등 주요 브랜드를 내걸고 19일까지 정기세일을 한다. 특히 백화점 오프라인 매장에서 적용되는 기본 할인율에 최대 20%까지 추가 할인되는 쿠폰과 7% 카드 청구 할인 등의 혜택을 내걸었다.

이 기간 롯데백화점관에서는 올 겨울 신상 아웃도어 상품 '컬럼비아 터보다운', 패션 상품 '잇미샤 양털 카라 무스탕 재킷', 잡화 브랜드 '마나스' 등의 할인 상품을 내놓는다.

또 현대백화점관에서는 '네파 월터 구스다운 재킷' '브로노말리 크로체 백' 등의 상품이 나왔다.

G마켓은 롯데백화점관을 통해 백화점 겨울 정기세일인 '러블리 세일'을 18일까지 전개한다.

'아디다스 덕 다운 패딩 파카(M69188)'와 '소렐 스노우엔젤(MU6-F-NL1840)'에는 각각 17%, 10% 할인하고 '휠라키즈 여아용 신학기 가방 신주머니 세트'와 '쯔비벨무스터 프라하에코 찻잔 2인조 세트(4P)' 등 유아동·주방용품도 정기세일에 포함됐다.

옥션과 롯데닷컴 역시 롯데백화점 겨울 정기세일을 하고 아웃도어·패션잡화·유아동·뷰티 상품을 내놓는다.

한편 11번가는 백화점 신년 정기세일 기간에 맞춰 입점한 백화점(현대·갤러리아·AK·대구 등)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백화점 새해 첫 신년세일' 기획전을 오는 18일까지 연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유통 채널을 넘나들며 알뜰한 쇼핑을 즐기는 '크로스 쇼퍼'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서로 연계해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고 실속 있는 쇼핑 환경을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휴대 편하고 먹기 편하고"

홍삼도 '스틱형' 대세



최근 휴대가 간편한 스틱형 홍삼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KGC인삼공사은 스틱형 홍삼농축액 '홍삼정 에브리타임'(사진)이 지난해 55만개 판매되면서 정관장 제품 중 홍삼정 플러스에 이어 연간 판매량 2위에 올랐다고 14일 밝혔다.

2012년 10월 출시된 홍삼정 에브리타임은 기존 홍삼농축액을 스틱형으로 포장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다.

인삼공사는 이 제품을 개발 단계에서부터 '테이크아웃 홍삼'이라는 콘셉트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휴대성을 높인 스틱 타입으로 홍삼업계에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삼정 에브리타임이 인기를 끌자 대형마트와 다른 건강기능식품 업체들도 비슷한 모양의 제품을 내놓으면서 스틱형 홍삼이 관련업계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오미 홍삼정 에브리타임 브랜드매니저는 "휴대하기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홍삼 제품의 고정관념을 바꾼 것이 인기 비결"이라며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어 판매량 1위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pjw@

"겨울철 보양식으로 건강 지키세요"

강강술래, 한우사골곰탕 55% 파격할인
길벗출판 추천도서 증정 이벤트도 진행

추운 겨울철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이 쓰이게 마련인데 든든한 보양식을 찾고 있다면 원기회복에 좋은 따끈한 사골국이 제격이다.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는 이달 말까지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대용량(800㎖·5봉·15인분)과 소용량(350㎖·5봉·10인분) 상품으로 구성된 보양식 한우사골곰탕박스를 55% 할인된 3만8800원에 판매한다.

강강술래 곰탕은 100% 한우로 우려내 맛이 진하며 단백질과 콜라겐, 각종 무기질이 풍부해 면역력 증진 및 질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또 15일 오후2시까지 주문하면 '잘먹고잘사자세트(한우불고기500g+술래양념520g+한돈양념500g+돼지양념500g)'는 6만원(48%할인), '건강기원세트(강강양념520g+한우불고기500g)'는 4만5000원(35%할인)에 특가로 선보인다.

한편 이달 31일까지 홈페이지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도서출판 길벗의 추천도서 도 증정한다.

'스키너의 마지막 강의'는 행동주의 심리학자 스키너의 삶에 관해 남긴 마지막 강의를 엮은 책으로, 노년의 삶에 관한 실용적이고 위트 있는 통찰을 엿볼 수 있다.

'슈퍼잼 스토리'는 할머니에게 잼 제조법을 배워 열네 살 때 회사를 차려 세계적인 천연잼 제조업체 '슈퍼잼'의 최고경영자가 된 프레이저 도허티의 창업 도전기다.

/박지원기자

뉴스&뉴스

야쿠르트 "모유 분리 유산균, 피부개선 기능"

●한국야쿠르트는 한국인의 모유로부터 분리한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HY7714'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 원료는 한국야쿠르트 중앙연구소가 5년의 연구개발을 거쳐 개발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으로 임상시험을 통해 피부 보습과 주름 개선 기능을 동시에 갖춘 것으로 인정받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로써 한국야쿠르트는 특허기술 121건, 특허 유산균 51종을 갖춘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분야 1위 기업으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허니버터칩 자매품 허니통통, 1주일만에 13억



●해태제과는 지난 5일 출시한 감자스낵 '허니통통'(사진)이 1주일 만에 매출 13억원을 올렸다고 14일 밝혔다.

히트 제품 기준인 월매출 10억원을 1주일 만에 달성했다고 해태는 설명했다. 이 기간 허니통통 초도 물량 5만4000박스가 '완판'됐다.

허니통통은 해태가 허니버터칩 품귀현상을 해결하고 경쟁사 유사품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제품으로, SNS에서 화제를 모아 일부 매장에서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박지원기자

대형마트 국산 양파 베트남 수출 앞장

롯데마트, 15일부터 1차 물량 판매



/롯데마트 제공

대형마트가 국산 농산물 수출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1차로 베트남에 10톤가량의 국산 양파를 수출해 내일부터 10개 점포에서 판매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양파는 국내 공급 과잉과 소비 부진으로 가격이 폭락해 재고 소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양파(1kg·상)'의 월평균 도매가격은 2013년 대비 30~70% 폭락했다.

저장양파 재고량(2014년 11/20 기준)도 전년 보다 14.3% 증가한 45만 2000톤으로 나타났다. 올해(1/1~13일) 들어서도 양파(1kg·상) 시세는 지난해 보다 30%가량 하락해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롯데마트는 국산 양파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를 위해 베트남에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농산물보다 저장성이 우수하고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판매되는 양파와 비교해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마트 측의 설명이다. 판매 추이를 지켜본 뒤 추가 물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베트남 현지 전단에 국산 양파 판매를 게재해 현지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할 방침이다.

홍원식 롯데마트 베트남 법인장은 "이번 국산 양파 베트남 수출을 시작으로 향후 국산 딸기·사과 등 다양한 과일과 버섯 등 채소로 수출 품목을 지속 확대해 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베트남 FTA 체결 등 국내 농업시장 개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우수한 국산 농산물의 판로 확대에 롯데마트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난 집에서 관리한다”

비용·시간 절약 장점 ‘셀프 뷰티 디바이스’ 인기

경기불황으로 집에서 피부를 관리하는 ‘홈케어족’이 늘어나면서 ‘셀프 뷰티 디바이스’도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다. 진동 클렌저·각질관리기·제모기 등 피부과나 에스테틱에서 볼 수 있었던 스마트한 기기가 인기다.

실제로 2013년 7월 국내에 상륙한 클렌징 디바이스 클라리소닉은 론칭 1년 만에 매출이 220%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뷰티업체들도 뷰티 디바이스 등 전문적인 홈케어 제품 개발에 나서면서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진동 칫솔을 개발한 소닉 과학자가 만든 클라리소닉은 브러시 진동이 아닌 1초당 300회의 움직임이 만들어낸 ‘물살’로 메이크업 잔여물과 모공을 세정해 손보다 뛰어난 클렌징 효과가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피부 컨디션에 따라 브러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거칠어진 발 뒤꿈치를 관리할 수 있는 각질 제거기도 겨울 시즌이 시작되면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풋케어 전문 브랜드 숄이 선보인 ‘숄 벨벳 사무드 익스프레스 페디’는 전동 발 각질 관리기로,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 된 고속 회전의 롤러 부분을 해당 부위에 갖다 대면 부드럽게 묵은 각질을 제거한다.

문지르는 것만으로도 피부·몸매 관리가 되는 백금코팅 전자롤러 ‘리파캐럿’은 ‘이영애 마사지기’라는 별칭을 얻으며 고공행진 중이다.

리파캐럿은 지난 8월 홈쇼핑 론칭 이후 32회 방송 연속 매진을 달성하며 현재 누적판매량 10만3000대, 매출액 약 307억 원을 돌파했다. 리파는 전원이나 충전 없이 손잡이의 태양 전지판으로 미세전류를 발생시키고, 특히 받은 전문관리사의 손 마사지 각도의 구현을 통해 피부에 즉각적인 효과를 주는 백금 페이스롤러다. 방수처리가 돼 물 속에서 사용해도 미세전류가 피부에 전달되며 맨 살에 직접 마사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뷰티업계 관계자는 “전문적인 관리 받기엔 비용이나 시간을 내기 부담스러운 이들이 홈케어 뷰티 제품을 많이 찾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용이 간편하고 실용적인 아이템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새 책가방’ 메고 새학기 준비 14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열린 ‘신학기 학생가방 대전’에서 고객들이 가방을 고르고 있다. 롯데마트는 포켓몬스터·레베카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가방 등 100여 개 품목을 15일부터 40%가량 할인 판매한다. /롯데마트 제공

스포츠·레저업계, ‘커스터마이징’ 열풍

배드민턴 라켓·신발 등 맞춤형 제품 출시 잇따라





스포츠·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관련 용품 시장도 커지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능성 제품이 출시되는 등 용품의 진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최근 배드민턴 라켓부터 하이킹 신발까지 개개인의 능력과 스타일에 맞춘 ‘커스터마이징’ 제품이 눈길을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드민턴 브랜드 요넥스코리아는 세계 최초로 튜닝이 가능한 ‘VOLTRIC 70 E-tune’(위 사진) 배드민턴 라켓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라켓에 에너지 튜닝 파트를 조립해 총 7가지 다른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신개념 라켓이다. 오렌지색과 보라색의 에너지 튜닝 파트를 라켓의 상·하부에 부착하면 본인이 원하는 경기 스타일에 따라 라켓을 만들 수 있다.

산행이나 아웃도어 활동을 즐겨하지만 평발·까치발인 사람들은 조금만 걸어도 상대적으로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단점을 보완해 자신의 발 모양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등산화도 등장했다.

노스페이스의 ‘다이나믹 하이킹 시리즈’(아래)는 평발·까치발 등 발 모양에 맞게 안정성·쿠셔닝·아치 높이를 차별화해 최적의 착화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아마추어 축구팀과 축구 동호회가 늘어나면서 축구 의류 브랜드 ‘포워드’도 입소문을 타고 있다.

포워드는 팀의 정체성을 담은 개성 있는 유니폼을 제작해주는 업체로, 최근 48가지의 유니폼 모델을 포함한 2015 봄·여름 컬렉션을 정식 론칭했다.

팀이 원하는 모델을 선택해 팀의 앰블럼과 스폰서, 번호, 이름 등을 새기면 특별한 유니폼이 완성된다.

/박지원기자

“식품부터 가구까지”… 콜라보 열풍

다양한 업종 간 협업 마케팅 확산

유통업계가 컬래버레이션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체로 패션과 뷰티 업계에서 협업을 통해 한정판 상품을 출시해왔으나 유아용품, 가구, 식품 등 다양한 업계로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다. 기획 상품을 출시하는 한편, 협업 이벤트를 진행해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의 글로벌 탄산음료 브랜드 마운틴듀는 남성라이프스타일채널 XTM과 이색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업은 주요 타깃인 10~20대 남성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이다.

지난해 12월부터 XTM의 프로그램 ‘가제트’를 통해 마운틴듀의 기획 에피소드 방송을 편성하고 이와 함께 공동캠페인 광고를 제작, 방영하고 있다.

가제트 ‘마운틴듀 편’을 통해 브랜드 탄생 배경부터 이들이 후원하는 마케팅까지 역동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쌓아올 수 있었던 모든 과정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필러 광고에서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역동적인 스노보더의 모습을 보여주며 한 층 더 새로워진 마운틴듀 롱넥보틀을 강조했다. 특히 ‘남자의 날을 세우는 겨울 아이템’으로 새로워진 마운틴듀를 알리며 젊은 남성 시청자의 라이프스타일을 자극,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까사미아 제공

가구 업체 까사미아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과 손잡고 ‘브라운’ ‘코니’ 등 인기 캐릭터를 활용한 제품을 대거 출시, 지난해 12월부터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7개월 간 양사의 기획 과정을 거쳐 제품을 선보이게 됐다. 압구정점에 선공개한 35종에 이어 제품을 추가해 현재 50종을 판매하고 있다.

한편 카시트 브랜드 조이는 미국 대표 키즈패션 브랜드 ‘스터판조셉’과 카시트 구매 고객에게 스테판조셉 테이블 가방을 증정하는 행사를 지난 11일까지 진행한 바 있다. /김수정기자 ksj0215@

“세계 최고의 바텐더를 찾습니다”

디아지오코리아, 국가대표 선발대회 개최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바텐더 경연 대회인 ‘월드클래스 2015’의 대한민국 대표를 선발하기 위한 국내 대회가 열린다.

디아지오코리아는 14일 매년 전 세계 50여 개국, 1만여 명의 프로 바텐더들이 ‘세계 최고의 바텐더’ 타이틀을 두고 겨루는 월드클래스의 2015년 국내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월드클래스는 바텐더의 지식·기술·창의력·서비스 정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제 대회다.

한국에서는 1회부터 지난해까지 6회 모두 국내 대회를 거쳐 대한민국 대표를 선발했다. 지난 2010년 2회 대회에서는 엄도환 바텐더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올해 대회에서는 보다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위해 온라인 필기시험 외에 클래식 칵테일 제작과정을 보여주는 동영상 심사항목이 새롭게 포함된다.



예선 심사를 거쳐 1차 선발된 40명 가운데 최종 결승전 진출자 10인을 뽑는 준결승전은 3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진행된다. 국내 대회 결승전은 오는 6월말 진행될 예정이다.

국내 대회 예선 참가 신청은 31일까지 월드클래스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1년 이상 관련 업종 현업 근무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박지원기자

무릎 연골 손상, 예방이 중요!

재생능력 없어 다치면 회복 어려워… 체력에 맞는 운동 필요



보통 무릎 통증은 부상을 당하거나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하지만 무릎은 나이·성별에 관계없이 무릎을 어느 정도 사용했느냐에 따라 연골 손상이 생길 수 있어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

무릎은 우리 몸을 지지하고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또 무릎 연골을 이루고 있는 반월상연골은 외부 힘을 흡수해 관절을 보호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위한 윤활 작용을 한다.

문제는 무릎 연골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과도한 무릎 사용이 연골을 닳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직업이나 가정일 등으로 쪼그려 앉는 일이 잦으면 그만큼 무릎 손상이 빨라지며 연골도 마모와 늘어짐이 반복되면서 파열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무릎에 통증이 나타나고 무릎을 눌렀을 때 아픔이 세지면 무릎 연골 손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불편함이 느껴져도 마찬가지며 많이 걷거나 운동한 후 무릎에서 소리가 나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통증이 심하다면 연골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무릎 연골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운동을 해야 한다.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고 운동 하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을 해야 한다. 집안일을 할 때도 쪼그려 앉기보다는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바꾸는 것이 좋다. 아울러 현미나 잡곡, 등푸른 생선을 자주 섭취하고 우유와 오메가3 등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 등을 통해 관절 건강을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릎 연골 손상 치료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통해 가능하다. 과거에는 연골을 제거하고 인공연골을 넣는 수술을 많이 시행했지만 최근에는 자가골수줄기세포치료와 같은 비수술적인 치료가 등장해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도현우 용인분당예스병원 원장은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연골은 피부와 같은 재생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예방을 위한 운동 등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스키장 갈 때 필수품은?



피부관리 위한 자외선 차단제·비타민 등 챙겨야

스키시즌이 시작되고 추위가 이어지면서 스키장에 인파가 넘치고 있다. 스키장을 가면서 사람들은 보온용품을 우선 준비하지만 스키장에 갈 때는 피부 손상이나 체력 회복을 위한 아이템도 미리 챙겨야 한다.

먼저 자외선 차단제가 필요하다. 자외선은 파장에 따라 자외선A(UVA)와 자외선B(UVB), 그리고 자외선C(UVC) 등 3가지로 나뉘는데 인체에 닿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주로 UVA와 UVB다.

특히 자외선 중 95%를 차지하고 있는 UVA는 계절과 날씨에 상관없이 피부를 공격한다. 게다가 스키장에서는 햇빛이 눈에 반사되는 등 자외선이 평소보다 강하며 이런 자외선은 주근깨뿐만 아니라 피부 노화와 피부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피부를 보호하려면 스키를 타기 30분 전 좀 많다 싶을 정도로 두껍게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것이 현명하다. 또 2~3시간마다 자외선 차단제를 덧바르고 땀을 흘린 뒤에는 마른 수건 등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한다.

아울러 보습관리를 해 피부가 갈라지거나 트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에센스와 크림을 평소 사용량보다 1.5배 더 발라주되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깜빡임으로 건조가 심해지는 눈가에는 전용 아이크림을 바르도록 한다.

또 평소 바디로션 없이 생활했다고 하더라도 옷을 겹겹이 입고 스키나 보드를 타면 각질이 일어나거나 트면서 간지러운 경우가 생긴다. 미리 바디로션을 충분히 발라 건조함을 막도록 한다.

이와 함께 피부관리와 피로 해소를 위해 고려은단의 '비타민C 1000'과 같은 고함량 비타민C 제품도 섭취하는 것이 좋다. 고함량 비타민C는 감기나 몸살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바이러스가 인체에 들어와 증식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 /황재용기자

혈관관리 어떻게 할까?

뉴트리라이트 '징코 M' 등 혈관관리 제품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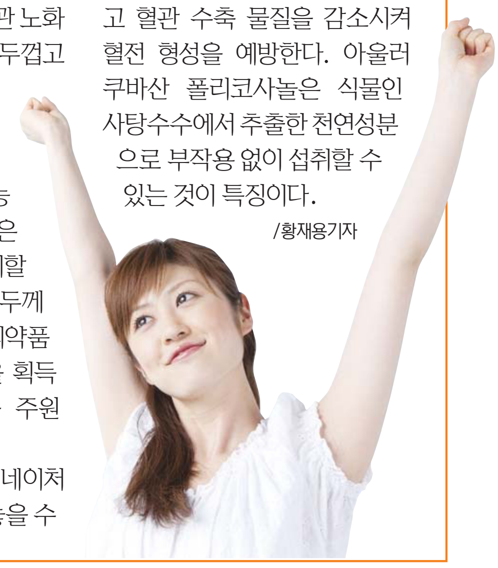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혈관관리의 중요성도 커졌다. 이에 혈관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먼저 식물영양소로 이름이 알려진 뉴트리라이트는 최근 혈행 건강을 위한 '징코 M'을 출시했다. DHA와 레시틴, 올리브유 등을 함유해 혈류 내 혈전을 감소시켜 혈관을 확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 징코 M은 순수 은행잎 추출물 플라보놀 배당체를 통해 '베타아밀로이드' 생성을 억제하고 활성산소로부터 뇌세포막을 보호해 기억력을 개선하는 효과도 갖고 있다.

씨스팜은 기존의 '몸팔팔'을 리뉴얼한 '혈관팔팔'을 내놓았다. 다른 신체 부위와 마찬가지로 혈관도 노화되는데 혈관 노화가 진행되면 혈관 내벽이 두껍고 딱딱해진다. 두꺼워진 혈관벽으로 혈관 내부가 좁아지게 되며 공간이 좁아지면서 혈관이 막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혈관팔팔은 이런 혈관벽 두께를 관리할 수 있는 제품으로 혈관 두께 감소 기능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별인정을 획득한 PME88멜론추출물을 주원료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레인보우앤네이처의 '폴리코사놀10'도 빼놓을 수 없다. 쿠바산 폴리코사놀을 함유한 폴리코사놀10은 혈액 중 총 콜레스테롤과 저밀도지단백(LDL) 수치를 감소시키고 고밀도지단백(HDL) 수치를 증가시켜 혈관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게다가 혈소판 부착과 응집을 막고 혈관 수축 물질을 감소시켜 혈전 형성을 예방한다. 아울러 쿠바산 폴리코사놀은 식물인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천연성분으로 부작용 없이 섭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황재용기자



겨울철 치아관리 ABC로 끝!



알코올(Alcohol) 절제
양치질(Brushing) 철저
뜨거운 국물(Cooking) 조심

겨울철에는 춥고 건조한 날씨와 잦은 음주 등으로 치아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구강 내에서 노화가 시작되는 30대부터는 잇몸 건강을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겨울철 치아관리를 위한 'ABC'를 소개한다.

먼저 '음주(Alcohol)' 후 관리를 기억해야 한다. 송년회에 이은 신년회 등으로 술자리가 반복되면 구강 내 상태가 크게 나빠진다. 술자리 후 양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잠드는 경우가 많은데 알코올은 구강 내 세균을 증가시켜 면역세포가 이를 이기지 못하고 잇몸 염증과 치조골 소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 술자리에서는 과일이나 채소 위주의 안주를 고르고 잠들기 전 반드시 꼼꼼한 칫솔질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겨울과 같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 구강 건조가 생길 수 있다. 이때는 '양치질(Brushing)'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칫솔질을 할 때 무리한 힘을 주지 말고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회전하듯이 여러 번 반복해서 닦는 것이 중요하다. 오랜 습관으로 자신도 모르게 힘이 들어간다면 연필 쥐는 모양으로 칫솔을 잡는 것도 한 방법이다. 양치할 때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많이 찾는 '뜨거운 국물(Cooking)'도 구강 건강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물은 뜨거워질수록 짠맛을 느끼기가 어려워 나트륨 함량이 권장량을 초과하게 되고 이는 입안의 산성 성분을 증가시켜 산도를 높임으로써 충치나 치주염을 유발한다. 게다가 육류를 기반으로 한 국물의 기름기는 치아 표면에 잘 달라붙기 때문에 칫솔질이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되면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권희준 일산 사과나무치과병원 원장은 "겨울철 건조한 날씨 탓에 구강이 건조해지면 세균 활동이 증가한다. 잠들기 전 적정량의 수분이나 무설탕 껌, 비타민C 섭취를 통해 침샘을 자극하면 구강 건조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재용기자

카리스마 넘치는 신인배우 **변 요 한**

“‘미생’은 낯선 배우·착한 사람들이 한 뜻으로 만든 드라마”
상 받은 독립영화 ‘소셜포비아’ 3월 개봉… 평범한 고시생역



“인터뷰는 항상 진심을 다해서 합니다. 장난치는 게 아니죠. 편안하게 차를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못해요. 한마디 한마디 신중히 생각하고 대답해 대중들에게 보답하고 싶습니다. 인터뷰는 대중과 만나는 하나의 통로잖아요.”

/김학철기자 kimc0604@

“미생 한석율은 잊어라”

배우 변요한(30)은 인터뷰 내내 신중하고 진중한 모습이었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tvN 금토드라마 ‘미생’에서 맡았던 한석율과는 180도 다른 분위기를 보였다. 5대5 가르마와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눈망울, 사적인 이야기를 할 때 간간이 보인 미소는 한석율의 그 것과 똑같았다. 그러나 신입사원 한석율의 가벼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진짜’ 변요한이었다.

‘미생’은 신드롬을 일으키며 지난해 최고의 드라마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 저력은 보석 같은 배우들의 열연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변요한을 비롯해 김대명·박해준·태인호·전석호 등 대중들에게 낯선 연기파 배우들의 등장은 드라마 ‘대박’의 원동력이 됐다. 자연스레 이들은 대중들의 슈퍼스타로 등극했다. 상부상조 한 셈이다.

“맞습니다. 모두가 대중들에게는 낯선 배우들이죠. ‘미생’을 통해 얼굴을 알리게 됐습니다. ‘미생’ 덕을 봤다기보다는 모두가 맡은 캐릭터를 잘 소화한 것 같아요. 캐릭터를 잘 만났죠. 모두가 다 같이 드라마를 살렸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덤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포상휴가도 다녀왔잖아요?(웃음).”

‘미생’ 종영 한 달여가 지난 시점이다. 각자 스케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변요한은 함께 했던 배우들과 매일같이 연락을 하며 살갑게 지내고 있었다. ‘착한 사람들’ ‘인간미 넘치는 사람들’을 캐스팅 1원칙으로 삼았던 김원석 PD의 말이 촬영을 마친 배우들을 통해 증명이 됐다.

“배우들 모두 심성이 착한 사람인 것은 확실합니다. 누구 한 명 작품보다 자신을 우선으로 내세운 사람이 없었어요. 작품을 위해 진실되고 진정성있게 연기하자는 뜻이 같았죠. ‘착함’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는 모든 사람은 착하다고 생각해요. 제 스스로는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미생’ 팀은 모두가 작품에 순수하게 다가가 뜻을 이해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변요한은 2011년 독립영화 ‘토요근무’로 데뷔했다. 이후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아 왔다. 지난해에는 독립영화 ‘소셜포비아’로 서울독립영화제 독립스타상을 받았다. 변요한은 영화에서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으로 등장한다. 우연히 SNS를 통해 만난 이들과 함께 의문사한 여인의 죽음을 파헤치는 미스터리 추리극이다. 오는 3월 스크린에 걸릴 예정이다.

“제가 맡은 지웅은 굉장히 평범한 캐릭터입니다. 한석율처럼 특이하지 않고 튀지도 않고 암울하지도 않아요. 저는 인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같이 도전하고 개척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에 복이 많다고 생각해요. 제게 그동안의 모든 작품들은 도전이고 실험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매 번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죠. 상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제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받을 때 기분은 좋습니다. 탄탄하게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는 평가? 방심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 무너지는 것들 입니다. 매번 초심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매 순간이 저와의 싸움입니다.”



사진/김민주(라운드테이블)·디자인/박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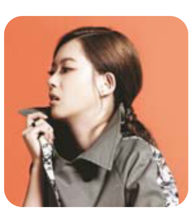
star bag

유키스 컴백 초읽기



그룹 **유키스**가 컴백 초읽기에 돌입했다. 14일 유키스는 미니 10집 ‘올웨이즈(ALWAYS)’ 발매에 앞서 수록곡 ‘스마트러브(SMART LOVE)’를 선공개했다. 스마트폰에만 빠져 있는 여자친구를 바라보는 남자의 심리를 표현한 곡으로 부드러운 멜로디와 톡톡 튀는 가사가 특징이다.

고아라 20대 女 패션 워너비



배우 **고아라**가 20대 여성들의 패션 워너비로 나선다. 고아라는 올해부터 여성 캐릭터 캐주얼 정장 브랜드 베스띠벨리(신원)의 얼굴로 활동한다. 고아라를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스타로 평가한 패션기업 신원의 노길주 상무는 “젊은 브랜드를 만드는 데 고아라가 제격”이라고 전했다.

“장근석 추징금, 회사 문제”



배우 **장근석**이 탈세로 1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국세청에 납부했다는 보도에 대해 소속사에서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14일 “현재 보도되고 있는 탈세와 세무조사에 대한 보도는 장근석이 조사를 받은 것이 아닌 장근석이 소속돼 있는 트리제이컴퍼니의 정기적 세무조사”라고 전했다.

정태우 ‘장비록’ 안방 복귀



배우 **정태우**가 KBS1 새 대하드라마 ‘징비록’에 출연한다. 군 제대 후 2년 만에 안방 복귀다. 정태우는 ‘징비록’에서 사냥 기술이 뛰어나고 말 타기에 능한 20대 청년 이천리 역을 맡았다. 이천리는 임진왜란을 지휘했던 서애 류성룡(김상중)의 충신으로, 전쟁의 일등공신이 된다.

손예진·김주혁 '행복이…' 촬영 종료

새롭고 신선한 스릴러 영화… 올해 개봉 예정

영화 '행복이 가득한 집'(감독 이경미)이 지난 11일 경상남도 양산에서의 촬영을 끝으로 크랭크업했다.

약 4개월 동안 혹한의 날씨 속에서 진행된 촬영은 두 주인공의 장면으로 마무리됐다. 촬영을 마친 뒤 손예진(사진)은 "촬영이 끝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이전 작품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많은 부분을 고민하며 촬영에 임했다. '행복이 가득한 집'을 통해 기존 스릴러 영화 속 여자 캐릭터와는 다른 새로운 캐릭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주혁은 "추운 날씨 속에서 고생하며 촬영했지만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니 아쉽다. 열심히 촬영한 만큼 밀도 있는 좋은 작품이 탄생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복이 가득한 집'은 국회입성이라는 행복한 미래를 눈앞에 둔 정치인 부부가 선거기간 동안 끔찍한 사건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스릴러 영화다. 손예진은 정치인의 아내로 자신들에게 닥친 사건을 홀로 파헤치며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되는 연홍을, 김주혁은 연홍의 남편이자 야망에 찬 정치인 종찬을 연기했다.

'미쓰 홍당무'를 연출한 이경미 감독의 신작이다. 이 감독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롭고 신선한 스릴러를 만들고자 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행복이 가득한 집'은 후반 작업을 거쳐 2015년 중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국제시장' 새해 첫 1000만

윤제균 감독 '해운대' 이어 두 번째… 국내 처음

영화 '국제시장'(왼쪽 사진)이 2015년 첫 1000만 영화에 등극했다. 영화를 연출한 윤제균 감독은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1000만 영화 두 편을 탄생시킨 '쌍천만' 감독이 됐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국제시장'은 개봉 28일째인 13일 하루 동안 15만5638명의 관객을 추가하며 누적 관객수 1000만1709명을 기록했다. 윤제균 감독의 전작 '해운대'보다 6일, '변호인'보다 5일 '괴물'과 '7번방의 선물'보다 4일 빠른 흥행 속도다.

윤제균(오른쪽) 감독은 '해운대'에 이어 '국제시장'까지 1000만 관객을 모으며 흥행의 귀재임을 다시금 입증했다. 윤제균 감독은 14일 투자배급사 CJ E&M을 통해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해운대'가 1000만을 넘었을 때는 기쁘고 설레는 마음이 컸는데 지금은 많은 관객들이 저의 진심을 조금이나마 알아주신 것 같아 감사하다. 관객 여러분께 그저 고마운 마음 뿐"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배우들도 1000만 돌파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주인공 덕수를 연기한 황정민은 "'국제시장'의 1000만 돌파는 모두 관객 여러분 덕분이다. 감사드린다"고 감격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덕수의 동반자 영자를 연기한 김윤진은 "'국제시장'은 나에게도 너무 뜻깊은 영화였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말했다.

오달수는 '국제시장'으로 한국 영화 최초 누적 1억 관객 돌파 배우가 됐다. 그는 "관객 수보다도 관객 여러분이 보여준 사랑이 더 뜻깊고 소중하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한국영화를 많이 사랑해달라"고 전했다.

지난달 17일 개봉한 '국제시장'은 연말과 연초에 큰 경쟁작이 없는 가운데 순조로운 흥행을 이어왔다.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로 중장년층 관객의 마음을 파고든 것이 유효했다는 분석이다. 진보·보수 이념 논란은 영화의 화제성을 높이며 오히려 흥행에 득이 됐다.

한편 '국제시장'의 투자배급사인 CJ E&M은 '명량'에 이어 '국제시장'까지 1000만 관객을 돌파함으로써 지난 한 해 동안 두 편의 1000만 영화를 배급하는 겹경사를 맞았다. CJ E&M은 2009년 '해운대'를 시작으로 2012년 '광해, 왕이 된 남자', 2014년 '명량'과 '국제시장'까지 총 4편의 1000만 영화 기록을 세우게 됐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러셀 크로우, CGV 스타 라이브톡



19일 압구정점… 17개 극장서 생중계

영화 '워터 디바이너'로 첫 한국 방문을 앞둔 할리우드 스타 러셀 크로우(사진)가 CGV 스타 라이브톡 행사로 관객과 만난다.

CGV는 12번째 CGV 스타 라이브톡 주인공으로 영화 '워터 디바이너'의 주연 배우 러셀 크로우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CGV 스타 라이브톡 행사를 통해 관객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것으로 기대된다.

러셀 크로우가 참여하는 CGV 스타 라이브톡 행사는 19일 오후 7시30분 CGV 압구정 1관에서 열리며 CGV 강변·구로·목동·영등포·용산·왕십리·대전·광주터미널·대구·천안펜타포트 등 전국 17개 극장에서 생중계한다.

'워터 디바이너'는 1차 세계대전 중 가족을 모두 잃은 코너(러셀 크로우)가 아들의 시신을 찾아 이스탄불로 떠나면서 겪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러셀 크로우가 감독과 주연을 도맡은 작품이다. 러셀 크로우는 오는 17일 내한해 20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에 머물 계획이다. /장병호기자

우주로 확장된 '매트릭스'

'매트릭스' 시리즈의 워쇼스키 남매 감독의 신작 '주피터 어센딩'이 다음달 5일 개봉을 확정했다.

'주피터 어센딩'은 인류를 구원할 운명을 지닌 주피터가 절대자로서 깨어나는 이야기를 그린 SF 액션 블록버스터다. 지구는 우주의 식민지이며 외계 종족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독특한 세계관의 작품이다.



밀라 쿠니스가 자신의 진짜 운명을 모른 채 지구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주인공 주피터 역을 맡았다. 채닝 테이텀은 주피터를 돕는 조력자로 활약한다.

한국배우 배두나도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인연으로 영화에 출연했다. /장병호기자

디즈니 사로잡은 '따뜻함과 감동'

다니엘 헤니, 디즈니 신작 '빅 히어로' 목소리 참여

배우 다니엘 헤니(사진)가 디즈니 신작 애니메이션 '빅 히어로'에서 목소리 연기로 캐스팅된 이유는 그가 지닌 "따뜻함과 감동"때문이었다.

1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빅 히어로' 내한 기자회견 행사에는 돈 홀 감독과 제작자 로이 콘리, 배우 다니엘 헤니와 김상진 캐릭터 디자인 수퍼바이저가 참석했다.

'빅 히어로'에서 다니엘 헤니는 천재 소년 히로의 형이자 공학도인 테디의 목소리를 연기했다. 유머와 편안함, 따뜻함을 지닌 대학생으로 히로에게는 아버지와도 같은 인물이다.

돈 홀 감독은 "다니엘 헤니가 한국의 톱스타라는 건 잘 알고 있었다. 오디션 때 첫 대사를 듣자마자 감동을 느꼈다"며 "테디는 이 영화의 심장과 같은 인물인데 다니엘 헤니의 유머와 따뜻함이 잘 맞았다"고 말했다.

영화 속 테디는 실제 다니엘 헤니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다. 프로듀서 로이 콘리는 "다니엘 헤니는 테디의 캐릭터 디자인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돈 홀 감독은 "다니엘 헤니가 목소리를 연기할 때 보여주는 제스처를 캐릭터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다니엘 헤니에게 '빅 히어로'는 첫 목소리 연기 도전이다. 그는 "목소리 연기는 어려운 도전이었다. 성우가 대단한 직업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며 "감독님의 기대를 최대한 파악해 그에 부응하려고 노력했다. 결과물에는 만족하지만 그 과정은 힘들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그러나 돈 홀 감독은 "(다니엘 헤니가) 목소리 연기가 어려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렵지 않게 소화해냈다"며 칭찬했다.

'빅 히어로'는 테디가 만든 힐링로봇 베이맥스가 히로와 함께 슈퍼히어로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액션 어드벤처 영화다. 오는 22일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E channel
기자들만 아는
숨겨진 속 이야기!
같이 볼래?
용감한 NEWS
식상한 기사거리는 즉각 폐기처분!
충격!
[밀착취재] 신동엽
알고보니, '헐'!
톱스타 A양이 궁금해?
궁금하면!
특별기자회견
용감한 기자들
매주 수요일 밤 11시 E채널
신동엽 | 홍석천 | 김태현 | 김정민 | 레이디제인
t.cast
E channel SCREEN DRAMAcube FashionN CINEf CHAMP FOX FOXlife FX
이 프로그램은 아임티캐스트 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www.imtcast.com

‘슈스케’ 새해 첫 행보

장재인 ‘킬미 힐미’ OST 공개
버스터리드 데뷔 앨범 예고



오디션프로그램 ‘슈퍼스타K’ 선·후배가 드라마 OST와 데뷔앨범 발표 소식을 전했다.

2010년 ‘슈퍼스타K2’에 출연해 개성 있는 창법과 음색으로 화제를 모은 장재인(사진)이 여성 신예 래퍼 ‘나쑈’와 함께한 MBC 드라마 ‘킬미 힐미’의 OST ‘환청’을 14일 공개했다. 이날 정오 각종 음원사이트에 공개된 ‘환청’은 이미 드라마 첫 방송에서 공개된 바 있다. 담담한 듯 흐르는 멜로디와 호소력 짙은 랩이 어우러진 이 곡은 극 중 차도현(지성)의 테마 곡으로 사용된다.

이번 곡은 에이핑크·카라·범키·유키스·‘감격시대’ OST 등을 작업한 ‘지그재그 노트(ZigZag Note)’가 작곡을 맡았다.

‘슈퍼스타K6’ 출신인 버스터리드가 2월 정식 데뷔 앨범을 발표한다. 지난 13일 버스터리드는 공식 SNS를 통해 앨범 준비에 한창인 연습사진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버스터리드는 사진과 함께 “많은 분들께서 언제쯤이면 저희 노래를 들을 수 있는지 문의를 많이 하셨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죄송한 대답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곧’입니다”라며 정식 데뷔 앨범 발매를 예고했다. /김학철기자



천재 뮤지션 샘옥

“에픽하이 음악 좋아해”

작년 GMF서 국내 팬과 첫 만남… 17일 내한 공연

한국계 미국인 싱어송라이터 샘 옥(Sam Ock·사진)이 한국을 찾았다.

지난해 그랜드민트페스티벌(GMF)에서 국내 음악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그는 최근 새 앨범 ‘그레이’를 발표하고 미국과 일본, 한국을 오가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샘 옥은 가스펠을 바탕으로 한 감성적이고 부드러운 멜로디를 들려준다. 그의 음악은 가스펠, 재즈, 힙합이 모두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다. 일본의 누자베스로 대표되는 재즈·멜로우 힙합이 바로 그가 추구하는 음악이다.

그는 14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소니뮤직코리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자베스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며 “누자베스의 음악을 듣기 전엔 힙합이 그렇게 감성적이고 부드러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추구하는 음악이 미국에선 드물다. 미국에서 힙합은 감성적이지도, 말랑말랑하지도 않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내 음악을 색다르게 느낀다”며 “하지만 한국 음악 팬들은 멜로디적 요소가 많은 내 음악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샘 옥의 진가는 그가 자란 미국도 아니고 부모님의 고향 한국도 아닌 일본에서 가장 먼저 알아봤다. 일본의 한 음반사의 제의로 정식 데뷔를 한 그는 “2011년 전까진 그저 취미로 음악을 했다”며 “교회에서 친구들과 앰프(AMP)라는 그룹을 결성해서 활동했는데 내 솔로 활동도 여기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어렸을 땐 한국 음악을 즐겨 듣진 않았다. 하지만 에픽하이의 음악은 무척 좋아했다”며 “타블로의 음악에선 진정성과 인간미가 느껴진다”며 같이 작업해 보고 싶은 아티스트로 에픽하이·윤하·제이래빗·캐스커를 꼽았다.

한편 샘 옥은 17일 서울 마포구 예스24 무브홀에서 첫 내한공연을 연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멜로우 힙합: 힙합의 하위 장르로 재즈풍의 멜로디 위주로 구성돼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온라인 핫 이슈

김주하, 폭력 전 남편에게 13억 지급할 판



김주하(사진) MBC 기자가 ‘불륜 책임 각서’ 때문에 남편에게 재산 13억원을 주게 됐다.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김주하와 남편 강 씨의 이혼 소송에서 귀책사유가 강 씨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도 김주하 명의로 된 재산 27억원 가운데 강 씨가 기여한 13억여원을 분할해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폭행·불륜 등 모든 책임이 남편 강 씨에게 있지만, 2009년 작성된 불륜 책임 각서에는 강 씨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모든 수입과 재산 관리를 아내에게 맡긴다”는 내용이 있다.

각서에 따라 2009년 이후 김주하가 재산을 관리해왔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13억원을 김주하가 지급하게 된 것이다.

현재 김주하는 선고를 받고 이의제기를 고민 중이다. /전효진기자 jeonhj89@

‘파티시에’ 조민아, 행정지도 처분 받아



제빵사로 변신한 걸그룹 쥬얼리의 전 멤버 조민아(사진)가 행정 지도 처분을 받았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조민아는 자신의 블로그에 인증받지 않은 유기농 빵에 대한 게시물을 올려 삭제 조치를 받았다.

한 네티즌은 “조민아가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 빵을 판매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민아 베이커리를 방문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구두로 시정 조치를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조민아는 제과점에서 유기농 빵을 판매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블로그에 유기농 빵과 관련된 게시물이 여러 개 올라와 있어 블로그를 초기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민아는 베이커리의 위생 문제와 아르바이트생 ‘열정페이’ 논란에 휘말려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았다. /김지민기자

힙합팬 흥분할 준비됐나!

인피닛플로우·정기고 vs 개코·빈지노·바빌론 ‘맞짱’

한국 힙합 레이블의 쌍두마차, 브랜뉴뮤직과 아메바컬쳐가 각기 다른 프로젝트 앨범을 내세워 ‘맞짱’을 준비한다.

브랜뉴뮤직은 14일 ‘명예의 전당’ 프로젝트 첫 번째 주자로 인피닛플로우의 싱글 앨범 ‘빈 어 롱 타임(Been A Long Time)’을 출격시켰다. 공식 해체 이후 8년 만에 재결성된 인피닛플로우는 원년 멤버 정기고와 DJ소울스케이프를 영입, 화제몰이에 성공했다.



이번 싱글 앨범은 신예 에이치디비츠(HD Beatz)가 제작했다. ‘빈 어 롱 타임(Been A Long Time)’은 ‘소울 음악의 대부’ 제임스 브라운이 선보인 ‘올 더 웨이(All The Way)’에 가미된 피아노 선율을 샘플링한 곡이다.

이 곡은 활동시절 ‘명품 힙합’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인피닛플로우만의 재즈 스타일을 그대로 복원했다는 평이다. 아울러 이들의 데뷔곡 ‘리스펙트 유(Respect You)’의 객원보컬로 활약했던 정기고와 대한민국 최고의 DJ라는 명성을 가진 소울스케이프가 완성도를 높였다.

이에 맞서 아메바컬쳐는 ‘뉴워크엔드’ 프로젝트의 첫 타자로 다이나믹 듀오의 개코를 선택했다. 개코는 얀키·빈지노·바빌론과 함께 오는 22일 디지털 싱글 앨범 발매를 예고했다. 빈지노는 일리네어 소속의 대한민국 대표 래퍼로 손꼽히는 힙합 자원이다. 반면 바빌론은 언더그라운드 신에서 떠오르는 보컬 신예로 이들의 조합만으로도 리스너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뉴워크엔드’ 프로젝트는 아메바컬쳐에서 2013년부터 진행한 ‘노워크엔드’ 프로젝트와 확연히 구분된다. 소속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활약중인 아티스트와의 공동 작업을 통해 보다 신선한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선공에 나선 브랜뉴뮤직의 인피닛플로우·정기고·DJ소울스케이프와 일주일 뒤 맹공을 예고한 개코·얀키·빈지노·바빌론의 프로젝트 격돌이 힙합팬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김학철기자 kimc0604@

'상속자들' 배우 활약 눈에 띄네~

'영화' 이민호·'드라마' 박신혜·'연극' 강하늘 맹활약


이민호


박신혜


강하늘

SBS 드라마 '상속자들'(2013)의 주연 배우들이 연초부터 영화·드라마·연극 등 각 분야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당시 작품은 "나 너 좋아하냐?" "지켜주고 싶게~"라는 대사를 유행시키며 화제가 됐다. 작품을 통해 이민호·박신혜는 연예계 대표 한류스타로 성장했다.

이민호는 영화계에서 흥행력을 자랑한다. 오는 21일 개봉되는 영화 '강남 1970'은 아시아 지역에 이어 북미 지역까지 총 13개국 개봉을 확정했다. 작품에서 김종대 역을 맡았다. 고아 출신으로 자라 친형 같은 백용기와 넝마주이 생활을 하다 건달이 된다. 땅을 갖고 싶다는 꿈 때문에 한방을 노리며 강남 개발 이권 다툼에 뛰어드는 인물이다. 이민호는 특유의 깊은 눈빛으로 욕망을 이루려는 청년과 권력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의 감성을 스크린에 담았다.

박신혜는 SBS 수목드라마 '피노키오'를 통해 연기 변신을 했다. 그동안의 캔디 이미지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가 분한 최인하는 극적 장치인 피노키오 증후군을 앓는다. 거짓말을 하면 딸꾹질을 하기 때문에 기자가 될 수 없다는 편견을 극복하고 있다. 사랑에 있어 밀당을 하기에도 어렵다. 솔직한 고백이 청춘 멜로의 재미를 더한다.

강하늘은 연극 '해롤드 앤 모드'로 관객과 만난다. 지난해 tvN 드라마 '미생' 이후 방송이 아닌 무대를 차기 작으로 선택해 주목 받고 있다. '미생'에선 완벽주의자 장백기를 섬세하게 표현해 호평 받았다. 연극에선 엉뚱한 19세 소년 해롤드로 변신했다. 해롤드의 취미 생활은 자살 놀이다. 그는 80세 노인 모드(박정자)에게 예측 불가한 애정 표현을 한다. 강하늘·박정자의 나이차를 초월한 커플 연기가 관전포인트다. '해롤드 앤 모드'는 내달 28일까지 국립극장 달오름 극장에서 공연된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양념 없는 자매愛 '반짝반짝'


SBS 새 주말극 '내 마음 반짝반짝' 출연진. /SBS 제공

장신영·이태임·남보라, SBS 주말극 '내반반'

배우 장신영·이태임·남보라가 두터운 자매애를 선사한다.

장신영·이태임·남보라는 SBS 새 주말극 '내 마음 반짝반짝'(이하 '내반반')에서 '진심원조 통닭' 세 자매로 출연한다.

14일 서울 양천구 목동SBS에서 열린 SBS 새 주말극 '내반반' 제작발표회에서 장신영은 "맏이라 동생들을 보살펴야 하는 책임감이 있다"며 "현장에서도 이태임, 남보라가 잘 따라준다. 말투나 행동들이 나를 울컥하게 해서 연기 호흡이 좋다"고 말했다.

장신영은 '내반반'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와 두 동생을 위해 사는 통닭집 첫째 딸 이순진 역을 맡았다.

둘째 딸 이순수로 분한 이태임은 "울분을 참고 견디며 살아야 하는 자매"라며 "서민을 대표하는 캐릭터"라고 역할을 소개했다.

이순수는 피아노를 잘 치는 재원이지만 가난한 집안 사정과 첫사랑의 후유증으로 우울한 삶을 사는 인물이다.

남보라는 통닭집 막내 이순정을 연기한다. 당차고 활발한 성격이지만 아버지 죽음에 얽힌 비밀을 알게 된 뒤 복수를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는 이날 "씩씩하고 당당한 내 성격이 대본에 많이 묻어있다"며 "연기하기 편하고 장신영, 이태임과 호흡도 잘 맞는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내반반'은 서민의 음식인 치킨으로 얽힌 두 집안의 성공과 성장을 이야기한다. '며느리 전성시대' '솔약국집 아들들'을 집필한 조정선 작가와 '아내의 유혹' 오세강 감독이 함께 만든다.

조정선 작가는 이날 "반전 같은 양념이 거의 없다"며 "세 자매가 지닌 순수하고 순정적인 마음 가짐에 주목했으면 좋겠다"고 관전포인트를 설명했다.

'미녀의 탄생' 후속 작으로 오는 17일 오후 9시50분 첫 방송될 예정이다. /전효진기자

방학 맞아 '반 고흐' '폼페이' 등 전시 풍성

고흐전 미디어아트 독특한 장르… 내달 8일까지 용산 전쟁기념관서


반 고희의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밀밭'.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학생들이 가 볼만한 전시가 풍성하게 열리고 있다. 반 고흐를 주제로 한 국내 최초 미디어아트 전시 '반 고흐: 10년의 기록'과 '로마제국의 도시문화와 폼페이' '인상파의 고향 노르망디' '앵그르에서 칸딘스키까지' 등 다양하다.

'반 고흐' 전은 고흐가 처음 그림을 그리던 시기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의 삶과 작품을 미디어아트로 선보이는 독특한 장르다. '활짝 핀 아몬드나무' '까마귀가 나는 밀밭'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 등 그의 유명작품을 포함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약 350여 점을 5m의 거대한 스크린과 70여대의 프로젝터, Full HD영상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2월 8일까지 용산 전쟁기념관 기획전시실.

베수비우스의 화산 폭발로 한 순간에 지도 속에서 사라지게 된 도시 '폼페이'를 재현한 '로마제국의 도시문화와 폼페이' 전은 당시 폼페이 건축물의 장식과 벽화, 장신구 등 화려했던 폼페이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 4월 5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인상파의 고향 노르망디' 전은 모네·부뎅·쿠르베 등 모던아트의 거장들이 그린 노르망디의 아름다운 풍경화를 볼 수 있다. 2월 15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5-6전시실.

미국의 기업가 던컨 필립스가 수집한 다수 서양미술 걸작품 중 일부를 선보이는 '앵그르에서 칸딘스키까지' 전은 국내에 미공개 된 유화 작품 85점을 최초로 공개하는 전시다. 3월 12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김민준기자 mjkim@

木 심야 예능 '토크 vs 관찰'

'띠과외' 편성 변경… '해투3' '자기야' 격돌



목요일 심야 예능프로그램이 토크와 관찰로 이분화됐다.

금요일 방송되는 MBC '띠동갑내기 과외 하기'(사진)는 오는 29일부터 편성 시간을 목요일로 변경한다. 이로써 KBS2 '해피투게더3'·SBS '자기야 백년손님'과 동시간대 경쟁하게 됐다.

KBS2 '해피투게더3'는 KBS의 대표 토크쇼다. MC 유재석·박명수·박미선·조세호·김신영은 사우나실을 배경으로 출연 게스트와 이야기를 나눈다.

'자기야 백년손님'과 '띠동갑내기 과외 하기'는 관찰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자기야…'는 자식이기보다는 손님이었던 사위들이 아내 없이 홀로 처가에서 장모와 시간을 보내며 벌어지는 일을 방송한다. 이만기·남재현은 장서간 화합과 갈등을 경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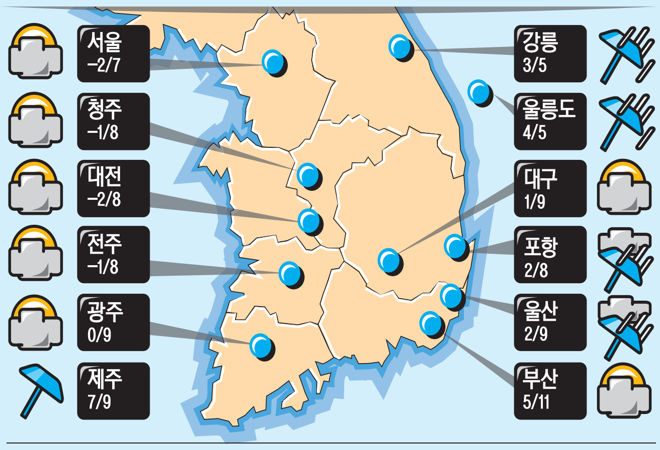
'띠동갑내기 과외 하기'는 김성령·성시경, 정재형·송가연이 스승과 제자가 돼 성장하는 내용을 방영한다. 김성령·정재형은 파트너와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영어, 종합격투기를 배우며 자연스러운 웃음을 자아낸다.

제작진은 "편성시간이 바뀌면서 프로그램도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갈 예정"이라며 "교육 아이템을 확장해 재미를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전효진기자

날씨

1/15 木 일출시각 07:46 일몰시각 17:3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겨울철 우울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적어도 한 번 햇빛을 쐬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산소 섭취량을 늘려야 합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1					
	4				9	5	3	
	2			5			1	8
	1		4		7	9		
		4	9		1		5	
2	6			1			9	
	3	1	7				6	
					6			5

3		4		6	5		7	
5			8		4			6
		8						
	8	2						
		7	9		6	5		
						1	6	
						7		
4			3		7			1
	9		4	1		6		2

스도쿠 정답

3	5	6	1	4	8	2	7	9
1	4	8	2	7	9	5	3	6
7	2	9	6	5	3	4	1	8
5	1	2	4	6	7	9	8	3
6	9	3	5	8	2	7	4	1
8	7	4	9	3	1	6	5	2
2	6	5	8	1	4	3	9	7
9	3	1	7	2	5	8	6	4
4	8	7	3	9	6	1	2	5

3	1	4	2	6	5	8	7	9
5	7	9	8	3	4	2	1	6
2	6	8	1	7	9	4	3	5
6	8	2	5	4	1	3	9	7
1	3	7	9	8	6	5	2	4
9	4	5	7	2	3	1	6	8
8	5	1	6	9	2	7	4	3
4	2	6	3	5	7	9	8	1
7	9	3	4	1	8	6	5	2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찐빵의 숨은 역사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찐빵의 역사를 보면 뜻밖의 사실이 적지 않다. 먼저 찐빵을 우리 고유 간식으로 생각하지만 일본에서 비롯됐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일제강점기 무렵 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찐빵은 근대에 생겨난 식품 같지만 의외로 역사가 길다.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 말, 중국은 원나라 말기에 만들어졌다. 지금 찐빵은 적당한 가격의 거리음식으로 주로 군것질용이다. 하지만 옛날 일본에서는 왕과 귀족, 그리고 높은 신분의 승려들이 먹었던 음식이다.

찐빵은 중국 만두가 일본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1341년, 원나라에 유학했던 류잔선사(龍山禪師)라는 일본 승려가 귀국하면서 현지에서 가깝게 지냈던 린쩡인(林淨因)이라는 중국인과 함께 돌아왔다.

친구 따라 일본에 온 린쩡인이지만 낯선 타국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었다. 그래서 류잔선사와 함께 절에서 지내며 만두를 빚어 팔아 생활을 꾸려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일본에서는 중국에서처럼 고기만두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육식을 금하는 절에서 만들어 파는 만두였으니 고기를 소로 넣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은 육식을 금지했기에 일반인들도 고기를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궁리 끝에 고기 대신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단팥으로 소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일본에서 말하는 단팥만두(あんまん), 우리가 말하는 찐빵의 원조라고 본다.

절에서 파는 찐빵이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자 소문이 일왕의 귀에까지 들어가 린쩡인은 단팥을 넣은 만두를 궁중에 진상했는데 낯선 음식을 먹어 본 일왕이 그 맛에 반했다. 얼마나 만족했는지 궁녀를 하사해 아내로 삼도록 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그러고 보니 호빵도 뿌리는 일본이다. 거리에서 팔면 찐빵, 가정용으로 만들면 호빵인데 1970년대 식품업체가 일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찐빵을 가정용으로 대량 생산한 것이 호빵이다. 지금은 보통명사처럼 쓰이지만 호빵은 사실 특정 상표명이다. 찐빵의 숨은 역사다.

/음식문화평론가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한은·의전원 응시 놓고 고민입니다
은행 포함 직장 고위직도 가능해요

Q

chldkdud 여자 90년 10월 17일 (음) 새벽 4시 20분

직장 생활을 일 년 하다가 길이 없는 것 같아 운 좋게 서울의 명문대 대학원에 들어왔습니다. 정보통신 분야로 석사 과정에 있는데 이 분야도 제 분야가 아닌 듯 싶어 박사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내년 한해 시험을 준비해서 분야를 바꿔 보고자 합니다. 내년 하반기 한국은행에 지원하거나 의사가 되는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는 길을 놓고 고민입니다. 두길 다 제 현재 수준에서 눈이 높은 곳이라 한군데만 노리고 내년 열달 열심히 준비해도 될까말까 한데 금융업 공기업 입사와 의대 둘 중 어디가 더 저에게 적합한지 사주상 여쭙습니다.

A

길성(吉星)의 기운이 있어 뚜렷한 지위를 갖추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과 시작을 의미하고 귀인을 만나게 되어 급부상하기도 하는데 저변에 실력이 향상되도록 자리를 잡아놓아야 하겠지요.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정재격(正財格:내가 극하는 오행으로 직장을 나타냄)으로 은행 포함하여 반듯한 직장, 공무원생활이 맞는 사주입니다. 그러나 전공이나 직업을 선택 할 때 그 직업이 운에서 승발해가야 무난한데 수재라 할지라도 자꾸 뒤바뀌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발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정보통신 분야도 귀하에게 운의 흐름을 봐서 적합 합니다만 귀하가 싫다고 한다면 '평양감사도 제가 싫으면 안하는 것'과 같겠죠. 귀하는 수기(水氣)가 유동하여 지혜와 영감이 뛰어나며 천주(天廚:부엌주)로서 평생 의식이 풍부하고 사람이 많이 따르고 인정이 있는데 간혹 얕은 생각을 써서 자신의 이득을 못 챙기고 손해 보게 됩니다. 2016년 12월에 시험 운이 있습니다. 동분서주 바쁜 생활을 하며 관(官)공망(空亡:비어있음)과 사주원국에 탕화살(湯火殺)이 있습니다. 이는 의심하고 반문하여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시로 변동을 가져오게 되는 살(殺)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법이 없습니다. 자신을 비관 하거나 감정의 변화가 심해 주변의 근심을 사기도 합니다. 사주상담을 하는 것은 이렇듯이 나쁜 것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을 미리알고 유비무환으로 대비하고 자제하여 형액을 막는 것이겠지요. 지혜가 밝고 학문이 뛰어나 입신출세하는 길함이 있으므로 고위직에 오르기도 하니 사색으로 중간에 머무르지 말고 실천해나가십시오. 폐가 약할 것으로 보이니 등산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사

■ KB금융지주
▲재무기획부장 이재근 ▲HR부장 윤여운 ▲전략기획부장 이창권 ▲리스크관리부장 정영삼 ▲홍보부장 최인석 ▲디지털금융부장 박종욱 ▲정보보호부장 배진호 ▲비서실장 성채현 ▲이사회 사무국장 직무대행 박영세

■ KB국민은행
◇승진 <수석부장> ▲여의도법인영업 김종대 ▲여의도영업 윤설희
<수석지점장> ▲가락동 강신주 ▲강동구청역 김용식 ▲강릉 박상준 ▲경안 김평희 ▲고현 손해락 ▲광화문 임필규 ▲길동 이창길 ▲대구 강석곤 ▲대덕특구 안동학 ▲대림동 허제량 ▲마포역 박지수 ▲명학 지운용 ▲무교 조순옥 ▲미금역 김병윤 ▲본리동 신순봉 ▲부평 권두현 ▲삼성센터기업금융 김수영 ▲서대문 김종란 ▲서소문 최종근 ▲성남하이테크밸리 서강오 ▲세종로 황상호 ▲송파 이경렬 ▲수내역 고인호 ▲시흥 윤사현 ▲신림남부 최대진 ▲신림본동 정공훈 ▲신림서 김경택 ▲신촌 김기영 ▲아현동 이상무 ▲압구정서 신석우 ▲야탑역 전갑수 ▲양재남 이우열 ▲양평동 오기홍 ▲여의도 양재영 ▲역삼동 양정순 ▲오산운암 김성문 ▲온천동 최종근 ▲용인 박형식 ▲유성 임채능 ▲응암오거리 김용현 ▲이수역 강영호 ▲이천 전영미 ▲인덕원 박종각 ▲일산 박린삼 ▲장위동 최상집 ▲장한평역 정동락 ▲주엽역 이진기 ▲진주 정희식 ▲철산역 구자정 ▲충무로역 김정권 ▲평촌범계 박정운 ▲포항남 윤영호 ▲하안동 엄완용
<수석센터장> ▲가산디지털종합금융 양용현 ▲강남역종합금융 이계성 ▲광산종합금융 박희숙 ▲구로동종합금융 허진 ▲시화공단종합금융 신병철 ▲영등포하이테크종합금융 문원희 ▲이촌PB 문용술 ▲종로중앙종합금융 최봉문 ▲창원종합금융 백충렬
<부장> ▲구조화금융 전광식 ▲수신IT 홍성우 ▲자금 이승종 ▲정보보호 최형철 ▲총무 최석문 ▲IT운영 이건우 ▲IT혁신 이지애 ▲WM상품 범진철
<수석심사역> ▲기업여신심사부 김현민 ▲기업여신심사부 오세관
<해외지점장> ▲홍콩법인 노재구 ▲하얼빈 연규희 ▲글로벌사업부 조사역 금경화

부고

▲최병오씨 별세, 최한묵(금융감독원 거시감독국 금융검사기법연구소장)·성묵(KT 충청업무지원 부장)·돈묵(가천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교수)씨 부친상, 이애주(안산 성포중학교 교사), 김상연(계룡 신천중학교 교사), 이선형(서울 금암중학교 교사)씨 시부상 = 13일 오후3시 충남 홍성의료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6일 오전 8시. (041)630-6244
▲ 강임선씨 별세, 이경훈(한국예탁결제원 나눔재단 팀장)씨 모친상 = 13일 오후, 효원장례문화센터, 발인 15일 오전. (031)222-0999, 010-4201-1655
▲ 오칠순씨 별세, 이장호(LS네트웍스 상무)씨 모친상, 남궁덕(이데일리 편집보도국장)씨 장모상 = 14일 오전 3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16일 오전 9시. (02)3410-6915

호주 언론 "한국 아주 불안" 혹평



슈틸리케 감독

17일 조별리그 마지막 호주전… "전력 풀가동 총력"

2015 호주 아시안컵 A조에서 한국과 함께 조 1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개최국 호주 언론이 한국 축구대표팀에 대해 혹평했다.

호주 일간지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13일(한국시간) 한국과 쿠웨이트의 조별리그 2차전 예선 결과를 전하며 "한국은 2연승으로 8강에 진출했다. 그러나 쿠웨이트를 상대로 지극히 불안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은 13일 캔버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쿠웨이트와의 경기에서 1-0으로 승리를 거둬 남아 있는 호주전 결과에 상관없이 8강 진출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날 경기는 '약체' 쿠웨이트를 상대로 힘겹게 거둔 승리였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쿠웨이트전에서 한국은 손흥민(23·레버쿠젠), 구자철(26·마인츠), 김진현(28·세레소 오사카)이 감기 증세로, 이청용(27·볼턴), 김창수(30·가시와 레이솔)는 부상으로 결장했다"며 정상 전력이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쿠웨이트는 후반 확실한 기회를 여러 차례 만들었다. 한국은 마지막 10분 동안 약팀처럼 수세에 몰렸다. 상대의 강한 공세에 고전했다"고 혹평했다.

한국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울리 슈틸리케 감독도 이날 경기 내용에 대해 실망감을 강하게 나타냈다. 경기를 마친 뒤 슈틸리케 감독은 "더 이상 한국은 우승후보가 아니다"라며 "쿠웨이트가 여러 면에서 더 나은 경기를 했다고 할 수도 있다. 승리한 것은 매우 운이 좋았다"고 밝혔다.

한국은 전·후반 볼 점유율 50.8%로 쿠웨이트와 비슷한 경기를 펼쳤다. 그러나 후반에는 볼 점유율 46.4%로 열세를 보였다. 점유율 자체도 상대를 수세적으로 회피하는 횡패스나 백패스가 주를 이뤘다. 이에 슈틸리케호가 지향해온 즐거운 축구가 궤도를 이탈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 오는 17일 브리즈번 스타디움에서 호주와 조별리그 3차전을 치른다. 호주는 쿠웨이트를 4-1, 오만을 4-0으로 완파한 개최국이자 우승후보로 이번 대회 최고의 난적이다.

슈틸리케 감독은 "호주전은 앞선 두 경기와 다른 강호인 만큼 차원이 다른 팀과의 대결"이라며 "최상의 전력을 가동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2015 호주 아시안컵 축구 조별 순위

A조

순위	나라	승	무	패	승점	골득실
1	호주	2	0	0	6	7
2	한국	2	0	0	6	2
3	쿠웨이트	0	0	2	0	-4
4	오만	0	0	2	0	-5

B조

순위	나라	승	무	패	승점	골득실
1	중국	2	0	0	6	2
2	사우디아라비아	1	0	1	3	2
3	우즈베키스탄	1	0	1	3	0
4	북한	0	0	2	0	-4

C조

순위	나라	승	무	패	승점	골득실
1	아랍에미리트	1	0	0	3	3
2	이란	1	0	0	3	2
3	바레인	0	0	1	0	-2
4	카타르	0	0	1	0	-3

D조

순위	나라	승	무	패	승점	골득실
1	일본	1	0	0	3	4
2	이라크	1	0	0	3	1
3	요르단	0	0	1	0	-1
4	팔레스타인	0	0	1	0	-4

<14일 현재>

막내 구단 KT 위즈 "마법을 현실로"

시무식… 팀 단결·집중력·인내심 강조

올해 프로야구에 새롭게 합류하는 제10구단 KT 위즈가 "마법을 현실로, 승리의 KT 위즈!"라는 구호와 함께 2015년 새해를 힘차게 맞이했다.

KT 선수단은 14일 경기도 수원 KT 위즈 파크 구대식당에서 첫 시무식을 열고 새해 각오를 다졌다.

지난해 4월 퓨처스리그(2군)에 데뷔한 KT는 41승 10무 37패로 북부리그 3위에 오르는 성과를 냈다. 올 시즌부터 1군 무대에 진입하는 KT로서는 지금부터 이뤄지는 모든 것이 곧 팀의 역사가 된다.

조범현 감독은 '돌 가운데 화살촉이 박힌다'는 뜻의 고사성어 중석몰촉(中石沒鏃)을 선수단화두로 제시했다. 온 힘을 다해 집중해서 일을 추진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 조감독은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며 "우리는 할 수 있다. 선수들을 믿고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장병호기자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 KT 위즈 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10번째 구단인 KT 위즈의 시무식. 조범현 감독(앞줄 오른쪽에서 3번째), 김영수 사장(앞줄 오른쪽에서 4번째), 김진훈 단장(앞줄 오른쪽)과 선수, 코치진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정호 "기회만 준다면 역할"

MLB 피츠버그 협상 위해 14일 미국행

미국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입단 협상을 진행 중인 강정호(28·넥센·사진)가 '메이저리거의 꿈'을 안고 14일 오전 미국으로 떠났다.

강정호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꾸준히 기회만 준다면 유격수로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번 방문은 피츠버그 구단의 초청에 의한 것으로 강정호는 현지에서 구단 관계자와 직접 만나 15~16일 이틀간 메디컬체크에 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정호의 피츠버그 입단 협상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피츠버그는 500만2015달러(약 55억 원)의 포스팅 금액을 적어 내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21일 오전 7시까지 강정호에 대한 독점 협상 권리를 얻었다. 양 측은 협상이 진행되면서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다는 보도가 현지에서 줄지어 나왔다.

출국 전날인 13일에는 현지 스포츠전문 매체인 ESPN에서 양측이 4년간 1600만 달러(약 173억5200만 원)에 계약하는 데 합의했다며 신체검사만 통과하면 곧 계약이 발효될 예정이라고까지 보도했다.



강정호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 이야기가 나와서 나도 당황스러웠다"며 "돈보다는 도전에 초점을 맞춘 것인 만큼, 꾸준히 기회를 준다면 만족하고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야구 외적으로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며 "선수들과 소통하고 잘 적응하느냐에 따라 성적도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학철기자 kimc0604@

쇼월터 "윤석민, ML 캠프 초청 않겠다"

전지훈련 마이너리그서

윤석민(29·볼티모어 오리올스·사진)이 마이너리그 캠프에서 전지훈련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지역지 볼티모어선은 14일(한국시간) 벅 쇼월터 감독의 말을 인용해 "윤석민을 메이저리그 캠프에 초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쇼월터 감독은 "윤석민이 지난해보다는 좋은 공을 던질 것이다. 그렇게 기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메이저리그 캠프 명단에서는 제외했다. 윤석민은 현재 볼티모어 40인 로스터에 제외된 상태로 볼티모어 산하 트리플A 노포크 타이즈 소속이다.



스프링캠프 때 윤석민은 다른 유망주와 함께 메이저리그 캠프에 합류될 전망이었으나 쇼월터 감독은 플로리다주 새라소타에서 열린 미니캠프에서 '윤석민의 마이너리그 캠프행'을 공언했다.

볼티모어선은 "윤석민은 575만 달러에 3년 계약(2014~2016년)을 한 선수다. 올해 기본 연봉만 175만 달러를 받고 내년에는 240만 달러를 받는다"고 말하며 윤석민의 메이저리그 캠프 명단 제외가 의외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쇼월터 감독은 지난해 트리플A에서만 23경기 등판 4승 8패 평균자책점 5.74를 기록한 윤석민을 일단 마이너리그 캠프로 보내기로 했다. /김학철기자

프로농구 전적 14일

SK	22	19	16	16	**73**
오리온스	22	12	21	12	**67**
전자랜드	12	20	18	35	**85**
인삼공사	21	18	13	20	**72**

프로배구 전적 14일

현대캐피탈	3	1	삼성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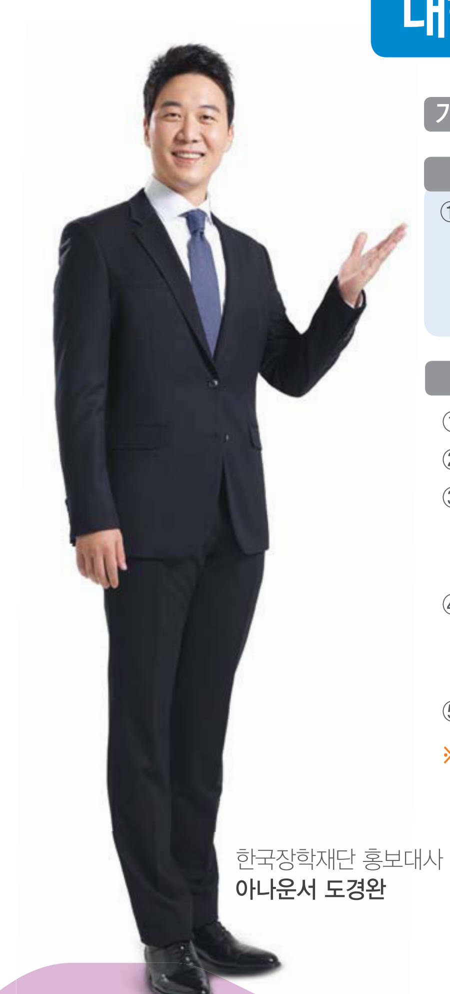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청춘을 응원하는 당신의 기부,
기분좋은 보람이 되어 돌아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꿈과 희망의
자유로운 날개를 접은 대학생들...
당신의 기부가 그들의 희망날개가 되어
사회의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학생을 위한 아름다운 기부에 참여하세요!



기부 활용 분야 기부장학사업, 인재육성지원사업, 기숙사 건립 지원 등

기부절차

① 약정하기
- 온라인 기부, ARS소액기부, 전화약정, 우편/팩스/이메일약정

② 납부하기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휴대폰결제, 방문납부 등
- 현물, 유가증권, 부동산 등 기타 자산 기부시 방문 및 전화 상담

③ 확인증 발급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기부확인증 출력 및 영수증 발급

납부방법

① 온라인 기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② 전화약정 (개인기부) 02-2259-2028, 2021 (법인기부) 02-2259-2621, 2622
③ 팩스/이메일/우편 약정서(홈페이지 다운로드)를 작성한 후, 제출
- 팩스 : 02-2259-2159 • 이메일 : gift@kosaf.go.kr
- 우편주소 : 서울시 중구 통일로 10 연세세브란스빌딩 6층 한국장학재단 나눔봉사부 기부금 담당자

④ 무통장 입금
- 신한은행 : 100-025-420820 • 기업은행 : 037-076308-01-146 • 우리은행 : 1005-601-531623
- 외환은행 : 630-006841-710 • 하나은행 : 175-910011-87604 (예금주 : 한국장학재단)

⑤ ARS 소액기부 060-700-1003 (한 통에 2천원)

※ 한국장학재단은 국가 법정기부금단체입니다. (2011년 7월 지정)

한국장학재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도경완

교육부 한국장학재단